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경제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 일 시 : 2015. 7. 28.(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신동원, 안창모, 여홍구,  
오용섭, 채금석, 한태식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 |   |  |
|---|--|
| 1 | 「강경성당」 문화재 등록                          |
| 2 | 「고양 대성암 괘불도」 문화재 등록                    |
| 3 | 등록 제175호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br>등록범위 확대 |
| 4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지정            |
| 5 | 사적 제157호 「환구단」 현상변경                    |
| 6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              |

### 【검토사항】

- |    |   |
|----|---|
| 7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 검토                         |
| 8  | 「연동교회 전도지」 문화재 등록                                     |
| 9  |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br>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 문화재 등록 |
| 10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문화재 등록                             |
| 11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문화재 등록                                |
| 12 |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 문화재 등록                            |

### 【보고사항】

- |    |                      |
|----|----------------------|
| 13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계획 보고 |
|----|----------------------|

## 1. 「강경성당」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강경성당」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검토('15.4.14.)를 거쳐 등록예고('15.4.27.~'15.5.26.)된 「강경성당」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천주교 대전교구 강경성당)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강경성당
  -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27번길 13-3
  - 소 유 자 : (재)천주교 대전교구 유지재단
  - 수 량 : 1동
  - 현황측량면적 : 639㎡
  - 건립시기 : 1961년 준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3)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 여부 심의
- (4)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5. 4. 27. ~ '15. 5. 26. (30일간)
  - 예고대상 : 건물 1동(639㎡)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22)>

- ○ ○ ○ 문화재위원
  - 전통적인 교회건축양식에 바탕을 두면서도 근대적인 구조와 미학을

반영한 건물로 동시대의 혜화동성당(1960, 등록 230호)이나 홍천성당(1957, 등록 162호) 등과 비교할 때 근대성당건축으로의 과도기적인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 성당건축의 근대화 과정의 기념비적 건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활용여건이 양호하므로 등록가함

○ ○ ○ ○ 문화재위원

-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뿔쪽 아치형으로 세우고 그 사이를 시멘트 벽돌로 쌓아서 외벽을 구성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음. 설계자는 프랑스 신부이지만 건축양식은 독일식 로마네스크의 특성을 단순화하여 보여 주고 있음
- 설계자, 건립과정, 보존상태, 주변환경 등의 관점에 볼 때 독특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강경과 천주교, 그리고 건축기술사에 중요한 사료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 ○ ○ 문화재전문위원

- 본 강경성당의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기존 성당건물과 유사한 반면 그 골격을 이루는 구조체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첨두형(포인티드) 아치형식으로 내부공간을 구성한 것으로 구조체의 조형성이 당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름.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1950년대말 60년대초 일반적인 건축구조형식을 벗어나 아치형식의 구조 프레임을 사용하여 대형공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예고 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강경성당」 등록조사보고서 1부.

# ‘강경성당’ 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주교 대전교구 강경성당 (구) 천주교 대전교구 강경성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로 27번길 13-3
4. 소유자 : (재)천주교 대전교구 유지재단
  - 현소유자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86

##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61년 2월 13일 (1959년 9월 15일 착공)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623.04m<sup>2</sup>, 연면적 623.04m<sup>2</sup>
- 층수(높이) : 1층

## 6. 조사자 의견(2015.01.22)

### <○○○ 문화재위원>

#### 1) 개요

1960년대 초반에 완공된 천주교 성당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과 거대한 아치보, 말뚝 없이 연약지반을 해결한 배 모양의 온통기초 등 당시로서는 특이한 구조방식과 외관의 현대적 처리가 돋보인 종교건물임.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전형적인 종탑(Rhenish Helm Spire)을 올린 독일 로마네스크 교회건축양식을 근대적인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단순화한 장방형 평면의 건물이다. 정면의 단순한 처리에 비해 우측 돌출 출입구는 두 개의 더스칸식 오더(order)가 합각지붕(페디먼트pediment)을 지지하고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건축구조에 조예가 깊은 신부(보드뱅, 에밀 Beaudevin, Emile, 1897-1976)의 설계와 감독으로 신축당시의 구조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 부분적으로 외벽(시멘트블럭 위 몰탈마감)에 잔 마감크랙이 있고, 내부 제단 좌우 제의실의 연결통로와 제단아치가 증축되었으며, 목조마루 위에 무근콘크리트로 덧 마감하였음.

####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성 김대건신부가 중국서 서품받고 황해를 거쳐 첫 발을 디딘 착지처 및 유숙지와 천주교 주요 순례지인 나바위성당(사적 318호)이 인근에 있고 강경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과 관광자원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교구성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유산으로서 보존여건은 양호함.

#### 5) 문화재 활용계획 검토

##### 가. 보존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천주교 대전교구 강경읍 전지역을 관할하는 본당(신자수 1,400명)으로서 계속 보존, 활용되고 있음.

성당은 신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므로 강경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또한 강경성당-성김대건신부 착지처 및 유숙지-나바위성당의 성

지 순례코스로서 활용되고 있음. 현재 논산시청에서는 개인소유인 김대건신부 유숙지를 매입하여 천주교사적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현재 신자수 1,400 명의 본당으로 잘 보존, 활용되고 있음. 천주교의 재산은 교구에서 소유, 관리하므로 본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매각 또는 전용은 교회공동체가 지속하는 한 변경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전통적인 교회건축양식에 바탕을 두면서도 근대적인 구조와 미학을 반영한 건물로 동시대의 혜화동성당(1960, 등록 230호)이나 홍천성당(1957, 등록 162호), 대흥동성당(1962, 등록643호) 등과 비교할 때 근대성당건축으로의 과도기적인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타 성당과의 차이점은 대흥동성당이나 혜화동성당이 완전한 근대적인 형태의 성당이라면, 강경성당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이지만 아치보와 천장, 로마네스크양식의 종탑 등 과도기적인 양식의 건물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성당건축의 근대화 과정의 기념비적 건물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존·활용여건이 양호하므로 등록가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논산 강경성당

<○○○ 문화재위원>

1) 개요

나바위 성당에서 분리된 논산의 부창동 성당에서 현 위치로 또 한 번 분리된 성당으로, 이 건물은 1959년 착공하여 1961년 2월에 준공하였다. 강경천이 바다로 흘러가며 굽이치는 물길과 늪지의 토질을 고려하여 온통기초를 토대로 구조적인 안정을 확보한 특이한 구조로 지었으며 공사현장에서 신자들이 직접 시멘트 벽돌을 제작하고 공사에도 참여해, 지역사의 중요한 현장으로서도 의미를 가지는 건축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뿔쪽 아치형으로 세우고 그 사이를 시멘트 벽돌로 쌓아서 외벽을 구성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설계자는 프랑스 신부이지만 건축양식은 독일식 로마네스크의 특성을 단순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뿔쪽 아치 모양의 콘크리트 보울트가 건물의 구조미와 온화한 예배실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내외부의 구조 및 마감재, 종탑의 구조, 종(원래 3개를 설치하였는데 현재 1개만 있고 2개는 인근 성당과 공소에 옮겨 달았다고 한다. 종 제작사-Fonderie Paccard는 18세기에 설립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며 한국의 성당 중에 이 회사에서 제작한 종을 설치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등을 통하여 1950년대 지방건축 현장의 기술력과 천주교계 내의 성당건축 관련인물 파악과 체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유구로 볼 수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보존상태는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 제대 뒷부분과 주출입 현관 부분에, 변화된 교회의 상황에 맞게 리모델링한 부분이 있으나 원래의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설치하였

기 때문에 원형을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원래의 목적대로 성당으로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존·활용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5) 문화재 활용계획 검토

최근 강경읍내 원도심 활성화와 보존·활용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변의 환경과도 어울리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광복 후 건립된 천주교 성당건축들이 이제는 등록문화재의 대상으로 떠오른 시점이 되어 전반적인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이 건축물은 설계자, 건립과정, 보존상태, 주변환경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독특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대전에 건립된 등록문화재 643호 대흥동 성당과 비교하면, 대흥동 성당은 한국인 건축가(이창근)에 의해 당시에 새롭게 시도되던 모더니즘 경향의 기법으로 현대적 감각이 도드라지는 세련된 건축물로서 한국근대건축양식사의 중요한 자료인 점이 특징인데 반하여 강경성당은 프랑스인 신부에 의해 독일식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건축부지가 가지고 있는 토질(강변의 습지)에 견딜 수 있는 온통기초로 하부시설을 안정화 시키고 상부의 구조 또한 선박의 뼈대구조를 거꾸로 활용하여 건물 전체를 지탱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구조물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방의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행한 설계자, 기술자 그리고 신도들의 조력이 결실을 맺은 지역사의 중요한 유적 및 유구라 할 수 있다.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5)번과 같은 사유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강경과 천주교, 그리고 건축기술사에 중요한 사료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천주교 강경성당

### <○○○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천주교 강경성당은 나바위 성지에서 분리된 부창동성당(논산)에서 1946년 8월 현재의 위치(강경읍 중앙리 228번지)로 재분리되어 만들어졌다. 박귀훈(요한) 신부가 초대 신부로 부임하였고 2대 신부는 목세영(율리오) 신부가 부임하였다.
- 1957년 3월 30일 성 요셉 구호의료원을 설립하고, 그해 9월 7일 본당 ‘쁘레시디움’을 설립하였다. 이후 2년이 경과한 1959년 9월 현재의 성당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61년 2월 13일 준공하였다.
- 신축공사를 시작할 당시 주임신부는 목세영 신부님이었고, 설계자는 정부주교님, 공사감독자는 박상래 당시 본당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 공사개요
  - 주임신부 : 목세영 신부
  - 공사설계자 : 정 부주교
  - 공사감독자 : 박상래(본당회장)
  - 총공사비 : 20,750,000 원
  - 공사양식 : 아연지붕 블록조 철근콘크리트

- 기공년월일 : 1959년 9월 15일
- 준공년월일 : 1961년 2월 13일
- 공사일수 : 428일
- 노역동원수 : 연 2,031명
- 교우부역인원 : 연 932명

○ 본 성당이 입지한 곳은 과거 강경천이 복개되지 않았을 당시 강경천이 굽이쳐 흐르던 지역으로 지반이 약한 곳으로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는 적합지 않은 곳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성당은 당시 조적조 성당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강경성당의 가장 큰 특징은 콘크리트 구조로 포인티드 아치형식의 대형틀을 구성하였다는 것과 30미터 정도로 중앙 전면에 높이 솟아 있는 정방형(다이아몬드 모양)종탑이다.
- 대부분의 성당 건물 평면이 중앙의 네이브와 양 측면의 아일로 구성되어 네이브를 높게 만들고 아일을 낮게 하여 지붕에 단차를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 성당은 그러한 구분이 없이 7개의 침두형 아치 구조들을 사용(전후면 포함 9칸)하여 성당 내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 이들 침두형 아치 구조들은 정점에서부터 힘차게 아래로 내리뻗으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 그 외곽은 버트레스 형식으로 안쪽의 틀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은 통로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 전체 9칸으로 구성하고, 원래 전면의 1칸은 종탑과 출입구로, 후면의 1칸은 중앙 제대와 제의실 등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하였다. 1987년 전후면 공간을 개조하여 원래 제의실과 준비실이 있던 칸막이를 제거하고 아치를 점차 줄여(recessed)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전면 성가대석과 출입구 부분을 일부 조정하였다.
- 전면 중앙에 위치한 종탑은 정사각형 평면으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4층으로 구획하고 최상층에 3개의 종을 걸 수 있도록 목조틀을 만들었다. 원래는 3개의 종이 걸려 타종시 화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재 2개의 종은 다른 곳으로 나눠주고 1개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1개의 종은 프랑스 Fonderie Paccard 회사(현재도 7대째 종을 만들고 있음)에서 만든 것으로 서산 동문동 성당에 있는 종과 같은 회사 제품이다.
- 외관상으로 독특한 종탑은 마치 다이아몬드 형상처럼 높이 솟아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종탑은 독일 림부르크(Limburg) 지방에 있는 성 조지 대성당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블록으로 만든 조적조와 콘크리트구조를 혼합하여 종탑구조를 만들었다.
- 원래 정면 3칸에 설치된 출입문을 모두 사용하였었지만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동측면에 위치한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다.
- 외벽은 블록을 쌓은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거칠게 마감하되 건물의 모서리와 창호의 인방재 및 창대는 매끈하게 처리하여 강조하고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건물의 외관은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고, 내부 공간 일부가 변형된

상태이다.

- 전면 종탑부분의 경우 출입구를 폐쇄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대의 경우 좌우에 벽체 칸막이로 준비실과 제의실을 만들고 각 벽면에 4성상을 모셨었지만 현재는 리세스된 형식으로 아치를 만들었다.
  - 건물 내부 바닥 역시 원래는 마루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그 위에 모르타르로 덮어 마감하였다.
  - 건물의 구조가 워낙 잘 만들어져 구조적인 안정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래 마루였던 바닥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게 됨으로써 부식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마루구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강경읍내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가 모두 9개소가 있으며, 단일 시군 중에서 강경만큼 등록문화재가 밀집된 곳은 없다. 그만큼 문화재의 활용여건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다.
- 5) 문화재 활용계획 검토
- 충남도 및 논산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들 문화재를 벨트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 천주교의 입장에서 인접한 익산군의 나바위 성당이 김대건 신부님이 처음 도착한 성지로 알려져 있는 까닭에 황산포구와 연계하여 성지순례코스의 하나로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성당으로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은 10여건 정도이고, 그중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3건을 제외하면 7건 정도가 해방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다. 이들 7건의 성당 중에서 본 성당건물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성당은 춘천 소양로성당(등록 161호), 서울 혜화동 성당(등록 230호), 대전 대흥동 성당(등록 643호) 세 개의 성당이 등록되어 있다.
  - 소양로 성당의 경우 반원형 평면을 기본으로 부채꼴 형상의 내부공간을 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와 조형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이고, 혜화동 성당의 경우에는 건축가 이희태의 설계에 의한 것으로 강당형 성당으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대흥동 성당 역시 고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종탑, 성당 내부를 기둥 없이 구성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절판 구조의 캔틸레버 캐노피에 의한 정면 주출입구 디자인 등이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으로 인정받았다.
  - 본 강경성당의 경우는 외관상으로는 기존 성당건물과 유사한 반면 그 골격을 이루는 구조체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침두형(포인티드) 아치형식으로 내부공간을 구성한 것으로 구조체의 조형성이 당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건물의 정면 중앙의 종탑 역시 독특한 형식으로 다이아몬드 형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또한 당시의 건축물로서는 조형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본 강경성당 건물은 1950년대말 60년대초 일반적인 건축구조형식을 벗어나 아치형식의 구조프레임을 사용하여 대형공간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건축적 가치

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본 건물의 건축적 가치를 높이고 있는 포인티드 아치 형식의 구조프레임과 다리아몬드 형상의 종탑은 본 건물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금은 창고의 한 구석에 보관되고 있지만 원래 제대부분의 제의실과 준비실의 벽체에 안치되었던 4구의 성상도 건물과 함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종탑에 있는 종 역시 본 건물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원래 3개가 있었던 것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다.
  - 동측면의 출입문 페디먼트에는 본 건물의 준공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원래 본 건물의 주출입구는 건물 정면이었지만 현재 주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받치고 있는 장식적 기둥과 더불어 성당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 원래 제대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제의실과 준비실도 성당의 원래 계획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가급적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첩에는 준공할 당시의 사진이 있어 복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마루로 되어 있던 바닥도 모르타르를 걷어내고 원래대로 마루로 하는 것이 건물의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과거나 현재나 본 건물은 강경성당으로 건축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그 명칭은 ‘강경성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고양 대성암 패블도」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고양 대성암 패블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15.05.26)를 거쳐 등록예고('15.06.09~07.08)된 「고양 대성암 패블도」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성암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제작자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고양 대성암 패블도	1점	세로553×가로305cm	1928년	향암 성업	면본 채색	대성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대성암	

- (3) 등록예고
  - 예고기간 : '15.06.09~07.08(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10.)>

- ○○○ 위원
  - 20세기 전반 경의 패블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작품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 있음.

○ ○○○ (○○대학교)

- 대성암 소장 괘불도는 근대 불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사 화파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성시기와 봉안장소가 명확하게 밝혀져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대학교)

-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까지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업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됨. 또한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근대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시대적 특징을 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 ○○○ : 고양 대성암 괘불도
- ○○○ : 고양 대성암 괘불도

○ 근대문화재과 : 고양 대성암 괘불도

※ 명칭은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기준'에 의거(문화재청 예규 122호, 2013.7.4)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문화재 등록명칭 :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조사보고서 1부.

#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
2.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대성암
3. 제작자 : 향암 성업
4. 소유자 : 대성암
5. 조사자 의견

## <○○○○ 위원>

### 1) 현황

○ 경기도 고양 북한산에 위치한 대성암에 소장된 괘불도로서, 1928년에 금어 향암 성업(金魚 香庵 性擘)이 단독으로 조성하였다. 괘불도는 여러 장의 면을 붙여 만든 화면에 진채로 채색되어 있는데, 윗쪽에는 반달 형태의 천축, 아래에는 원형의 지축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상단 좌우에는 천으로 만든 복장낭(腹藏囊)이 2개 달려있다. 복장낭은 앞면에 금박으로 囍(희)자가 적혀있으며 뒷면에는 묵서 범자(梵字)와 ‘소화삼년(1928)진하’라는 한글이 적혀있어 이 복장낭이 괘불도와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좌측 복장낭에는 2개의 술, 우측 복장낭에는 각각 1개의 술이 달려있으며, 복장물은 각각 중앙에 천원(天圓)과 지방(地方)으로 묵서되어 있는 두 개의 한지로 감싼 후 오색실로 감아놓았다. 그 안에는 각각 東(동), 西(서), 南(남), 北(북), 中(중)이라고 적힌 한지를 사각함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실을 넣었으며, 여러 색물은 한지에 묵서로 써서 대신하였다. 이것을 ‘八葉蓋(팔엽개)’라고 쓴 종이로 다시 한 번 감쌌다. 실제 소입 제색물(所入 諸色物) 대신 비록 한지에 글을 써서 넣었지만 그 내용이 나 절차는 『조상경』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묵서로 적힌 소입 제색물(所入 諸色物)은 다음과 같다.

구분	東	南	西	北	中	
1	五鏡	方鏡	三角鏡	圓鏡	半月鏡	圓鏡
2	五輪種字	靑綃am輪	紅綃rām輪	白綃vām輪	黑綃hām輪	黃綃khām輪
3	報身呪	報身a字	報身vā字	報身rā字	報身hā字	報身khā字
4	化身呪	化身a字	化身ra字	化身pa字	化身ca字	化身na字
5	眞心種字	綃輪hūm字	紅綃輪traḥ字	白綃輪hrīḥ字	黑綃輪aḥ字	黃綃輪vām字
6	五寶瓶	靑色瑪瑙寶瓶	黃色摩尼寶瓶	紅色珊瑚寶瓶	綠色琉璃寶瓶	白色水晶寶瓶
7	五穀	大麥	稷	稻	綠豆	摩
8	五寶	生金	眞珠	生銀	琉璃	琥珀
9	五藥	人蔘	甘草	柱心	阿梨	附子
10	五香	靑木香	丁香	蕾香	沈香	乳香
11	五黃	大黃	雄黃	小黃	雌黃	牛黃

구분	東	南	西	北	中	
12	五芥子	蒔蘿青芥	紫芥	白芥	蔓菁芥子	黃芥
13	五彩幡	靑綵幡	紅彩幡	白彩幡	黑彩幡	黃彩幡
14	五色絲	靑線	紅線	白線	黑線	黃綯
15	五時花	靑時花	紅時花	白時花	黑時花	黃時花
16	五菩提樹葉	香樹葉	楸樹葉	夜合樹葉	梧桐樹葉	櫟樹葉
17	五吉祥草	矩舍草	摩訶矩舍草	室利矩舍草	苾芻矩舍草	悉黨矩舍草
18	五傘蓋	靑蓋	黃蓋	紅蓋	綠蓋	白蓋
19	五帛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黃帛杵

## 2) 내용 및 특징

- 이 괘불도는 1928년에 제작된 것으로, 아미타불삼존과 아난존자, 가섭존자 등 5존을 화면에 짝 차게 그린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면 중앙에는 본존인 아미타불이 타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배경으로 정면을 향해 있으며, 좌우에는 정병(淨瓶)을 든 관음보살(觀音菩薩)과 연꽃을 든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이 협시하였다. 아미타불은 둥근 얼굴에 높고 뾰족한 육계(肉髻)가 솟아있으며, 머리에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로 장식되었다. 목은 짧은 편이어서 다소 답답해 보이지만 가늘게 삼도(三道)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상체에는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법의(法衣)를 걸쳤는데, 법의 가장자리는 화려한 화문으로 시문하였다. 드러난 가슴 아래로는 군의(裙衣)가 보이며, 군의자락은 발목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쪽 뺨어 무릎 아래까지 내렸으며 왼손은 배 앞으로 댕겨 엄지와 대지를 맞잡은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두 손 가운데 특히 왼손은 아미타불의 신체에 비해 너무 작아서 비례가 맞지 않는다. 좌협시보살인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이 그려진 보관을 쓰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오른손은 내려 정병을 쥐 채 정면을 향해 서있으며,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은 두 손으로 연꽃가지를 비스듬히 들고 역시 정면을 향해 서있다. 두 보살은 아미타불보다 앞 쪽으로 나와 있어 본존을 약간 가렸는데, 이러한 배치는 20세기 괘불도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화면 상단 본존의 두광 좌우로는 아난존자(阿難尊者)와 가섭존자(迦旻尊者)가 각각 손을 맞잡은 채 중앙을 향해 서있다. 젊은 사미승의 모습인 아난존자는 본존을 향해 두 손을 맞잡아 합장하였으며, 백발과 흰수염이 성성한 노인모습의 가섭존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지권인같은 수인을 취하였다. 이들 존자는 다른 권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져 있어 그림의 중심은 아미타삼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단의 배경은 청색을 칠하고 갈색과 주황색, 녹색의 도식화된 채운(彩雲)을 드문드문 배치하였으며, 하단은 옅은 양녹색으로 칠하였다.
- 이 괘불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음영법의 사용이다. 신체의 윤곽선에는 음영을 주었으며, 본존의 법의에도 윤곽선을 먹으로 그은 후 선을 덧대어 입체감을 주었다. 또 불, 보살은 음영없이 고르게 설채된 반면,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는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채색은 황색과 주황색, 청색, 흰색 등 근대기 불화에 많이 사용된 채색이 두드러지며, 동시대 다른 불화와 달리 안료의 번짐 현상은 심하지 않다. 화면 하단에는 묵서로 아래와 같이 화기가 적혀있다.

[화기]

岿於

佛紀二九五五年 戊辰 四月 日/ 新畫成奉安于/ 漢京杏村教堂也/

緣化所/

證明 鐵牛大吼/ 會主 迦陵東虎/ 立繩 雪松尙玄/ 持殿 東雲景壽/ 金魚 香  
庵性擘/ 誦呪 比丘英鮮/ 鍾頭 沙彌正安/ 供司 比丘尼戒明/ 別座 比丘一來  
/ 都監 比丘息慈/ 化主 沙門南溪/

佛事施主/

清信女乙丑生安氏普明佛/ 清信女甲申生崔氏圓滿日/ 清信女丁卯生韓氏淨滿月/  
清信士壬戌生金徧行/ 乾命生姜奎熙/ 童子甲寅生金敬培/ 本教堂信男信女一同/  
水陸齋時同參男女一同/

自願同參秩/

清信女甲子生金氏淨蓮華/ 清信女戊辰生金氏寶光華/ 清信女癸酉生張氏大乘華/  
清信女丁亥生李氏報恩華/ 清信女己巳生鄭氏寶德華/ 清信女丙寅生金氏蓮華性/  
清信女丁卯生李氏智勝行/ 清信女壬戌生金氏明心行/ 清信女辛巳生閔氏道德華/  
清信女戊子生鄭氏大慈日/

清信女丁巳生田氏清淨行/ 清信女己未生金氏積德行/ 清信女庚戌生高氏普賢心/  
清信女庚申生張氏上品華/ 清信女辛未生李氏大道行/ 清信女丁巳生姜氏善德華/  
清信女戊午生姜氏寶德華/ 乾命乙丑生咸千根/ 清信女辛未生金氏明德行/ 清信女  
辛未生金氏/

清信女戊辰生李氏福德華/ 清信女丁卯生林氏圓明華/ 清信女壬戌生金氏淨覺月/  
清信女庚寅生羅氏正法華/ 童女辛亥生金善敬/ 清信女壬戌生金氏善德華/

清信女癸亥生韓氏圓滿月/ 乙酉生李氏/ 乙卯生裴氏/ 丁巳生又順/

童子壬子生閔炳淵/ 童子甲寅生閔炳吉/ 乾命戊子生羅元正/ 清信女癸酉生張氏受  
戒行/

清信女丁巳生朴氏普賢心/ 清信女壬申生金氏平等心/ 清信女 生李氏安養心/  
清信女丙寅生洪氏一正心/ 清信女乙卯生朴氏大光華/ 清信女己巳生朴氏大善行/  
清信女庚子生郭無邊光明/ 清信女丙辰生金氏大悲月/ 清信女壬戌生崔氏上生華/  
乾命戊午生金貞鉉/ 童子壬戌生金元植/ 童子戊辰生金亨植/

清信女甲戌生梁氏德仁華/ 清信女壬戌生池氏極樂行/ 乾命戊戌生尹氏/

乾命癸酉生尹基鳳/ 淸信女甲子生洪氏精進佛/ 淸信女甲寅生李氏光明日/  
 淸信女甲寅生金氏法性華/ 坤命崔氏/ 坤命乙丑生黃氏/ 信女癸亥生李氏淨蓮華/  
 信女戊辰生李氏妙蓮華/

- 화기에 의하면 불기 2955년 무진(戊辰) 4월에 괘불도를 새로 조성하여 한경 행촌교당(漢京 杏村教堂)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볼 때 이 괘불도는 1928년 4월 초과일을 맞이하여 한경, 즉 서울에 위치했던 행촌포교당에 조성 봉안했던 괘불도로 추정된다. 이 괘불도가 언제 대성암으로 이안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사찰측의 전언에 의하면 대웅전의 불단 아래에서 수십 폭의 도량장엄화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한다. 현재 도량장엄화는 모두 소각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이 괘불도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예산 향천사 괘불도(1924년)의 예를 볼 때 소각된 도량장엄화는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괘불도 조성의 증명(證明)은 鐵牛 大吼, 會主는 迦陵 東虎인데, 1929년에 간행된 <佛敎> 제69호에는 ‘행촌동 불교회에서 동안거 해제를 이용하여 홍철우노사(洪鐵牛老師)와 함동허화상(咸東虛和尚)이 음력정월 10일부터 3일동안 관음예문(觀音禮文)을 행하고 미타예참법문(彌陀禮懺法門)을 설했다’는 기사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철우와 동호는 행촌포교당에 주석하던 승려였으며 당시 이 괘불도를 봉안하고 법회를 개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이 괘불도는 금어인 향암 성엽 1인이 조성하였다. 성엽은 20세기 초반에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계룡산화파의 원조인 금호당 약효의 제자로 추정된다. 그는 1905년에 약효와 함께 마곡사 대웅보전 삼세불도를 조성하였으며 1906년에는 금선대 칠성도를 제작하였다. 이어 1919년에는 금지사의 불사를 주도하였으며, 같은 해 약효와 함께 서울 극락선원의 괘불도를 조성하였다. 성엽과 약효와의 관계는 대성암 괘불도의 도상이 1919년의 극락선원 괘불도, 1924년의 향천사 괘불도와 유사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 기타
- 대성암 괘불도는 조선말기에 성행한 아미타괘불도로서, 삼존이 중심이 되는 구도를 비롯하여 편단우견의 착의법, 보살의 복장, 아난존자와 가섭존자의 모습, 신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손의 모습 등에서 서울 극락선원 괘불도(1919), 예산 향천사 괘불도(1924년, 등록문화재) 등과 친연성을 갖고 있다. 극락선원 괘불도에 묘사된 동자와 동녀, 향천사 괘불도에 표현된 6체자와 4동자, 4천인 및 시방불도상 등이 생략되긴 했지만, 구도와 색채, 인물표현이 금호당 약효가 동성정연 청응목우 영성몽화 연암경인 효암재찬 래순 등 제자들과 함께 제작한 향천사 아미타괘불도(1924년)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아 향천사 괘불도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성암 괘불도는 1928년에 鐵牛를 증명, 東虎를 회주로 하여,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룡산 화파의 대표화승인 금호당 약효의 제자 향암 성엽이 단독으로 조성하였다. 괘불도를 비롯하여 靈山齋 때 사용되던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이 함께 전래되어 왔으나 아쉽게도 괘불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량장엄화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스승인 금호당 약효가 1924년에 조성한 예산 향천사 괘불도와 도량장엄화 18점이 모두 남아있어 대성암 괘불도 역시 그와 같은 선례를 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괘불도는 비록 조성연대는 오래지 않았지만 복장낭과 후령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괘불도 조성을 통해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등록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면본바탕이며 조성연대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괘불도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그렇지만 뒷면에 꺾임을 방지하기 위한 청테이프가 붙어져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괘불도 상단에 붙어있는 2개의 복장낭은 현재 일부가 박락되고 헤져 있어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복장물은 보존처리를 거친 후 보관함을 만들어 내용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토록 한다. 또한 복장물의 세밀한 조사를 통해 차후 불화복장의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대성암 괘불도와 함께 조성된 도량장엄화(오여래도, 사보살도, 팔금강도)를 재현해냄으로써 20세기 전반기 사찰에서 거행된 영산재의식을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괘불도는 원래 야외의식을 위해 조성된 것이므로 괘불도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영산재나 초파일 등 의식 때 괘불도를 걸어 신도들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괘불도의 보존환경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 6) 종합의견

-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는 1928년에 향암 성엽이 조성한 괘불도로서, 비록 조성연대는 오래지 않았지만 복장낭과 후령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에 등록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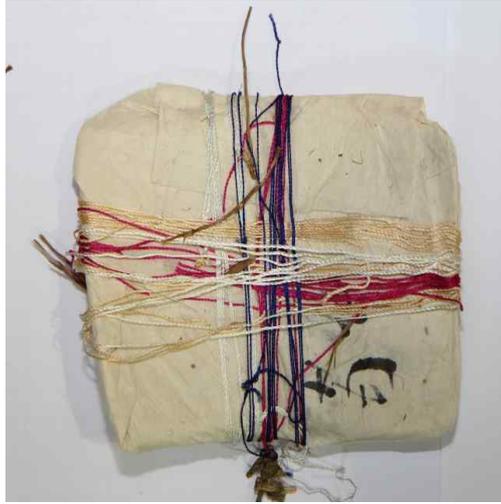
괘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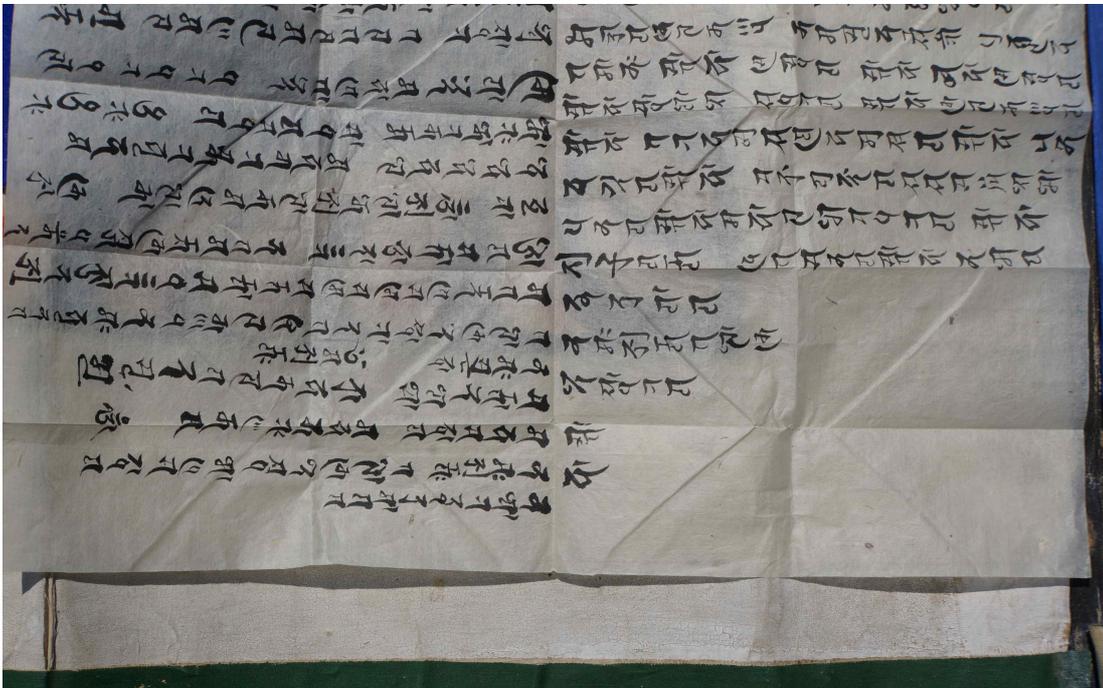
괘불도의 뒷면



복장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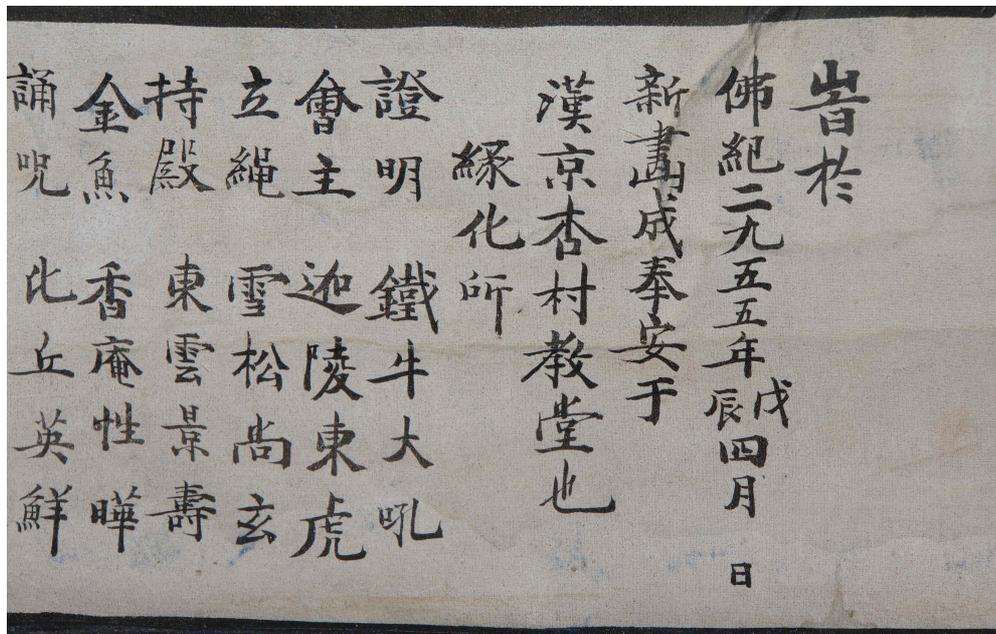
복장물



복장물 - 다라니



종이 보병(東方) 내 복장물



화기

<○○○○ (○○대학교)>

1) 현황

- 북한산 대성암에 소장되어 있는 괘불도로서 1928년에 조성되었다. 위쪽 상측은 반달 형태이며, 아래 쪽 하측은 원형으로 지름이 6.0cm이다. 상측에는 2개의 고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천으로 만든 복장낭 2개가 매달려 있다. 복장낭 표면 앞쪽에는 쌍희자(囍)가 금으로 적혀 있으며, 뒤쪽에는 묵서의 '음'자와 함께 한글로 '소화삼년무진하'라고 쓰여 있다. 복장낭에서는 '천원(天圓)' '지방(地方)'이라 묵서되어 있는 오색실 한지묶음 1조가 발견되었다. 현재 괘불도의 전

반적인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가로 꺾임자국이 많이 나있는 실정이다.

## 2) 내용 및 특징

- 이 괘불도는 1928년 조성 작으로 근대기 충청지역의 중심 화파인 마곡사화파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괘불도로서, 향암당 성업(香庵堂 性晔)이 그렸음을 화기를 통해 알 수 있다.
- 화면 전면에 삼존불을 내세우고 뒤쪽으로 물러나게끔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두어 평면의 화면에 공간감을 형성해주고 있다. 중심부에 위치한 본존불의 경우 오른쪽 어깨를 완전하게 드러낸 우견편袒형(右肩偏袒形) 착의법에, 법의(法衣)는 홍색 대의(大衣)에 밝은 녹색 계통의 군의(裙衣)를 착용하였다. 두 손은 왼손을 북부쪽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뜨려 마치 향마촉지인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손 모습은 17세기 이후 비로자나불을 제외한 모든 불(佛)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가모니불일 경우 좌우 협시보살상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좌협시보살상의 경우 보관에 화불(化佛)을 모시고 손에 감로병을 들고 있는 관음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협시보살상은 두 손으로 연꽃 가지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의 보살상이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존불의 성격은 석가모니불 또는 아미타불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관음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을 협시로 둔 석가모니불 도상의 경우는 일찍이 곡성 도림사영산회괘불도(1683년)에서 엿보이고 있어 대성암 괘불도 역시 석가모니불 그림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좌협시보살상의 경우 여의(如意)를 지물로 둔 문수보살상 대신 정병(淨瓶)을 들고 화불(化佛)이 있는 보관을 쓴 관음보살상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석가모니불의 제1 협시인 문수보살상 대신 『묘법연화경』 「관음보살보문품」 중의 대표 홍포보살인 관음보살상을 두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본존불 머리광배 좌우로는 석가모니불의 제1·2존자인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하였으며, 화기(畫記) 내용 중 ‘불사시주(佛事施主)’ 명단에 각 개인 시주자와 함께 ‘수륙재시동참남녀일동(水陸齋時同參男女一同)’ 으로 되어 있음을 보아 수록재 때 사용되는 석가모니불 주인공의 <영산회상도> 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 삼존상의 각 존상 표현은 턱이 가름해져 둥글어진 얼굴 형태에 황색이 많이 가미된 피부색을 하고 주홍색과 연녹색 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도(三道) 부위와 가섭존자의 신체 외에는 음영이 배제된 채 선의 강약과 색 배합으로만 입체감을 나타냄으로서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본존불의 광배는 키 모양 광배의 변형으로 테두리 쪽에 오금을 주어 능형(菱形)을 이루고 있으며, 안쪽에는 아무런 문양 없이 녹색과 하늘색 단색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둥글어진 얼굴 형태에 지극히 부분적인 곳에만 간단한 음영이 보일 뿐 단순 처리되어 있는 신체, 테두리가 능형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문양 없이 단색 처리된 변형된 키 모양 광배, 전면에 삼존상을 두고 권속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평면적 화면에 원근을 나타내주는 화면구성방법 등은 마곡사 화파의 대표 화승인 금호당 약효(錦湖堂 若效)가 수화승을 맡아 조성한 충남 예산 향천사 괘불도(1924년)와 비교하여 권속의 수만 다소 차이가 드러날 뿐 거의 동일한 양식특징을 보여 그 영향관계가 짐작된다.

- 화승 향암 성엽은 금산 보석사 대웅전 봉안 석가모니후불도(1911년), 충청남도 부여 내산면 금지리 금지사(金池寺) 봉안의 아미타후불도·칠성도(1919년) 등에서 금호 약효와 함께, 또는 금어로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마곡사 화파의 영향권 내에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화면 하단 테두리에 묵서의 화기가 남아 있는데 내용을 통해보아 이 괘불도는 1928년 향암성엽이 조성하여 서울(漢京)의 행촌교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畫記]

岿於

佛紀二九五五年戊辰四月 日

新畫成奉安于

漢京杏村教堂也

緣化所

證明 鐵牛大吼

會主 迦陵東虎

立繩 雪松尙玄

持殿 東雲景壽

金魚 香庵性曄

誦呪 比丘英鮮

鍾頭 沙彌正安

供司 比丘尼戒明

別座 比丘一來

都監 比丘息慈

化主 沙彌南溪

佛事施主

淸信女乙丑生安氏普明佛

淸信女甲申生崔氏圓滿日

淸信女丁酉生韓氏淨滿月

淸信士壬戌生金徧行

乾命 生姜奎熙

童子甲寅生金敬培

本教堂信男信女一同

水陸齋時同參男女一同

自願同參秩

淸信女甲子生金氏淨蓮華

清信女戊辰生金氏寶光華  
清信女癸酉生張氏大乘華  
清信女丁亥生李氏報恩華  
清信女己巳生鄭氏寶德華  
清信女丙寅生金氏蓮華性  
清信女丁卯生李氏智勝行  
清信女壬戌生金氏明心行  
清信女辛巳生閔氏道德華  
清信女戊子生鄭氏大慈日  
清信女丁巳生全氏清淨行  
清信女己未生金氏積德行  
清信女庚戌生高氏普賢心  
清信女庚申生張氏上品華  
清信女辛未生李氏大道行  
清信女丁巳生姜氏善德華  
清信女戊午生姜氏寶德華  
乾命乙丑生咸千根  
清信女辛未生金氏明德行  
清信女辛未生金氏  
清信女戊辰生李氏福德華  
清信女丁卯生林氏圓明華  
清信女壬戌生金氏淨覺月  
清信女庚寅生羅氏正法華  
童女辛亥生金善敬  
清信女壬戌生金氏善德華  
清信女癸亥生韓氏圓滿月  
乙酉生李氏  
乙卯生襄氏  
丁巳生又順  
童子壬子生閔炳淵  
童子甲寅生閔炳吉  
乾命戊子生羅元正  
清信女癸酉生張氏受戒行  
清信女丁巳生朴氏普賢心  
清信女壬申生全氏平等心  
清信女 生李氏安養心

淸信女丙寅生洪氏一正心  
 淸信女乙卯生朴氏大光華  
 淸信女己巳生朴氏大善行  
 淸信女庚子生郭無邊光明  
 淸信女丙辰生金氏大悲月  
 淸信女壬戌生崔氏上生華  
 乾命戊午生金貞鉉  
 童子壬戌生金元植  
 童子戊辰生金亨植  
 淸信女甲戌生梁氏德仁華  
 淸信女壬戌生池氏極樂行  
 淸信女丁巳生鄭氏菩薩行  
 乾命戊戌生尹氏  
 乾命癸酉生尹基鳳  
 淸信女甲子生洪氏精進佛  
 淸信女甲寅生李氏光明日  
 淸信女甲寅生金氏法性華  
 坤命 崔氏  
 坤命乙丑生黃 氏  
 信女癸亥生李氏淨蓮華  
 信女戊辰生李氏妙蓮華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28년 향암 성엽에 의해 조성되어 서울 행촌교당에 봉안하였던 대성암 괘불도는 도상해석상 비록 본존불의 성격이 석가불인지 아미타불인지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화면구성을 비롯하여 존상의 형태 및 신체 특징, 본존불 광배 모양과 표현기법, 주홍색과 연녹색 및 코발트 계통의 청색의 사용 등에 있어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룡산 화파(마곡사 화파)의 양식특징을 잘 따르고 있는 불화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수록재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성암 소장 괘불도는 근대 불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곡사 화파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성시기와 봉안장소가 명확하게 밝혀져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보존정비

- 현재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나 가로 꺾임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으며, 꺾임 방지를 위해 배면에 포장용 청테이프로 둘러놓아 이의 제거와 더불어 보수배접이 필요하며, 보수 시에는 더 이상의 화면 꺾임에 대비하여 굵게말이축을 제작하여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와 같은 보강으로 괘불도의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서 괘불함 또한 새롭게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남아 있는 복장낭 역시 보수처리하여 매달아 둠으로써 괘불도 본래 장엄의 모습을 갖추도록 함이 좋을 듯하다.
- 괘불도의 보존을 위한 보호각 건립은 사찰의 규모 및 운영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1차적인 보존처리 및 보강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활용 착안사항

- 괘불도의 경우 1년에 1-2회 정도는 거품을 실시하여 보존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월 초파일이라든지 수륙재 등의 별도 행사 시 공개토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보 및 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 특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북한산 내에서의 여법한 불교행사 개최와 문화유산 공개에 따른 역사인식 및 공감대 형성, 문화유산을 대하는 시민의식 고취 등 교재로서의 자료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1) 현황

- 이 괘불은 화폭의 위·아래에 나무로 만든 축을 끼워 걸 수 있게 하였다. 상축은 둥근 단면으로, 하축은 삼각형의 단면으로 하였다. 화기는 따로 화기란을 구획하지 않고 화폭 아래쪽에 먹으로 기재하였다. 괘불함에 말아 보관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가로 접힘 흔적이 있고 안료의 변색, 오염, 박락이 다소간 있긴 하지만, 화면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채색이나 세부 문양 등이 잘 남아 있다. 그러나 청테이프로 보이는 것을 화폭의 바깥쪽과 화폭 뒤쪽에 붙여 놓아(아마도 화폭의 보강을 위해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보완안을 강구하여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좋겠다. 복장낭 2점이 상축에 남아 있으며, 그림의 뒷면에는 붉은 색으로 범자를 적었다.

2) 내용 및 특징

- 이 괘불은 향암 성업(香庵性擘)이 참여하여 제작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아미타여래를 크게 그리고 양쪽에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여래의 광배 뒤쪽에는 가섭과 아난을 작게 그리고 배경에는 피어오르는 구름을 표현하였다.
-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왼손을 가볍게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렸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이 표현되어 있고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으며, 세지보살은 연꽃 가지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양손으로 가지의 위아래를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황, 코발트블루 등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들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문양, 불보살의 육신부에 열은 먹을 사용하여 음영을 표현하는 등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밑그림을 살펴보면, 주요 존상들의 모습과 배치 등이 향암 성업의 스승인 금호 약효가 1920년을 전후해 제작한 괘불들과 매우 유사하여 성업이 이들 괘불에 근거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불보살과 가섭의 특징적인 상호, 독특하게 휘날리는 불보살의 대의와 군의,

여래의 지나치게 작은 손까지도 금호 약효가 제작한 패불의 것과 닮아 있다. 또 불보살의 옷끝단을 검은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식도 금호 약효의 화파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이다. 실제로 1919년에는 금호 약효, 향암 성엽이 함께 <극락선원 패불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어 화풍상의 영향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화기의 불사 시주자 중에는 수록재 때 동참한 남녀 일동이 참여하기도 하여 당시의 불사도 요즘의 불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 이 패불은 10미터가 넘는 대형 패불에 비하면 작은 편에 속하지만, 화기를 통해 불 때 동참한 대중의 수가 상당하여 많은 인원이 십시일반으로 시주하여 조성된 패불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문헌자료

- 『북한산의 문화유적과 불교자료 연구』 ((사)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북한산 대성암, 2014)
- 『韓國의 佛畵 畵記集』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 4) 기타

- <고양 대성암 패불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 당시인 1928년에는 서울의 행촌 교당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대성암으로 옮겨온 유래는 명확하지 않다.
- 이 패불은 비슷한 유형의 패불인 1924년의 <향천사 패불도>와 비교해 화폭의 크기나 화면 내 구성 및 도상, 화풍이 유사하나 권속이 간략하고 문양 등 세부의 치밀함과 정세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화기에 기재된 대로 화승 향암 성엽이 단독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성암의 패불은 금호약효를 비롯해 우수한 화승들을 포함한 7인이 참여해 그린 <향천사 패불도>와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근대기 불화 조성의 다양한 사례 중 하나로 시대적 특징을 지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고양 대성암 패불도>는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에까지 그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엽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근대기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고양 대성암 패불도>는 야외 의식용 불화라는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특화, 발전시켜 불교의식의 전승 및 재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의 불교의식과 패불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패불과 관련하여 야외 불교의식에 관련된 지화(紙花) 등의 공예품, 음식, 여러 무형문화재 등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 3. 등록 제175호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록범위 확대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의 문화재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등록 제175호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의 등록범위 확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검토('15.2.10.) 및 등록예고('15.5.1.~'15.5.30.)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정읍시장
- (2) 대상문화재
  - 명칭 :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등록 제175호)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60-1외 1필지
  - 소유자 : ○○○
  - 수량 : 토지 2필지 1,958㎡
- (3) 심의사항 : 문화재 등록범위 확대 여부 심의
  - ※ 기타사항 : 정읍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로 기 등록된 창고와 이에 연접한 창고 및 이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 지침상 문화재로 등록된 구역 외에는 매입할 수 없어 등록범위 확대를 신청하였음
- (4) 등록예고
  - 예고내용 : 문화재 추가 등록 예고
  - 예고기간 : '15. 5. 1.~'15. 5. 30.(30일간)
  - 예고대상 : 토지 1,958㎡(신태인리 260-1(1,060㎡), 230-8(898㎡))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1.22)>

○ ○ ○ ○ 문화재위원

- 도정공장 창고로서의 특이한 구조나 설비가 없고, 건물이력도 명확치 않고 노후화가 심해 등록가치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 등록된 창고(등록문화재 175호)의 활용을 위해서는 도로와 창고사이의 부지를 포함한 지정구역의 확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 문화재위원

- 훼손과 변형이 심하여 문화재 등록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지방행정기관에서 등록문화재 부분을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진입도로(문화재의 서쪽)와 주차장(문화재의 남쪽) 등의 부대/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가 서 있는 해당필지(261-3과 260을 제외한 필지)를 구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함

○ ○ ○ ○ 문화재전문위원

- 일제강점기 창고로서 건축적 가치는 현격히 떨어지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며, 기존 등록된 창고건물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상황이 활용의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260번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예고 내용대로 문화재 등록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록범위 조정 조사보고서 1부.

#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등록범위 조정 조사보고서

1. 명 칭 :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
2. 용 도 : 창고
3. 소재지 : 전북 정읍 신태인읍 신태인리 260-1 외 1필지
4. 소유자 : ○○○
  - 현소유자 주소 : 전북 정읍시 상동
5. 대상문화재 개요
  - 건축구조 : 조적 + 목조트러스
  - 준 공 일 : 미상
  - 수량 및 면적 : 적벽돌 시멘트기와 창고 1동, 목조강판 창고 2동, 토지 9필지 2,955㎡
  - 층수(높이) : 1층

## 6. 조사자 의견(2015.01.22)

### <○○○ 문화재위원>

#### 1) 개요

기존 등록문화재인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에 연접한 창고및 근생시설의 추가 등록과 지정구역 확대를 신청한 사안임.

####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양식이나 특징이 없는 목골조에 강판지붕을 이은 창고 건물로 벽체는 흙벽에 몰탈 마감이고 지붕골조는 트러스구조이다. 창고의 측벽에 잇대어 증축된 측랑부(aisle)는 근생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건축년도와 수리이력이 명확치 않은데다 노후화가 심함.

####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전시계획에 따라서 일제의 농업수탈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리고 도정업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등록(2005년)이후 현재까지의 상황과 주변의 여건으로 볼 때 활용계획대로의 실현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됨.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도정공장 창고로서의 특이한 구조나 설비가 없고, 건물이력도 명확치 않고 노후화가 심해 등록가치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기 등록된 창고(등록문화재 175호)의 활용을 위해서는 도로와 창고사이의 부지를 포함한 지정구역의 확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건축양식적인 특징이 없을뿐더러 훼손이 심해 등록가치 미흡함. 다만 활용을 위해 지정구역 확대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 문화재위원>

#### 1) 개요

등록문화재 제175호 등록(2005년 6월 18일 등록)된 적벽돌 조적조의 창고와 연결하여

증축한 부분을 추가로 문화재등록하기 위한 조사이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이번 조사의 대상 유구는 목조와 흙벽으로 축조된 증축부분이다. 두 번에 걸쳐 증축된 것으로 짐작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미비로 파악할 수 없다. 내부를 살펴 보면 목조 구조체에 흙벽으로 마감한 부분이 보이며 등록문화재인 붉은 벽돌조 건물과는 다른 구조형식으로 되어 있다. 지붕의 트러스도 문화재등록 부분보다 간략화 되어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훼손과 변형이 심하다.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해당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등록된 부분과 이번 조사 부분을 합하여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문화재 등록할 당시(2005년 6월)에는 해당 유구의 상태 정도로 등록할 정도로 전국적인 유사 유구의 파악이 미비하여, 일제 수탈의 현장 정음이라는 장소성의 의미에 가치를 두고 등록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그 후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지금, 이러한 유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현재, 이번 조사대상물 정도의 유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 되었다.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따라서 이번 조사 대상물은 문화재 등록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지방행정기관에서 등록문화재 부분을 매입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진입도로(문화재의 서쪽)와 주차장(문화재의 남쪽) 등의 부대/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가 서 있는 해당필지(261-3과 260을 제외한 필지)를 구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문화재전문위원>

1) 개요

- 본 건물은 기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창고건물(등록문화재 제175호, 2005년 6월 18일 등록)과 맞닿은 창고로 건축년대는 불분명하다. 기존 문화재에 대한 확대 지정 요청이다.
- 증축된 창고 건물에 대한 문화재 등록 신청이다. 그렇지만 문화재적 가치 이전에 현재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웃한 부지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유자와 정읍시에서는 당해 부지에 위치한 창고 건물 역시 문화재로 등록하기를 원하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기존 등록문화재에 맞닿아 증축된 창고 건물은 전형적인 창고건물로 두세 차례 정도의 증축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기존 창고가 조적식 벽체위에 트러스 지붕을 얹은 형식이라면 조사대상 창고 건물은 경량목구조 형식의 벽체 위에 목조 테두리보를 두르고 트러스를 얹은 구조이다.

- 경량목구조의 기둥 사이에는 중간 가로대로 서로를 지지하고 그 사이벽은 댓가지로 벽체의 바탕을 만들고 흙으로 앞뒤를 채운 방식으로 되어 있다.
  - 트러스형식은 기존 창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왕대공 트러스 형식이고, 트러스의 양측면에서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가새를 댄 방식으로 되어 있다.
-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내부의 지붕트러스와 벽체 일부는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벽체 외부는 전면에는 또 다른 건물을 달아내었고, 후면에는 양철슬레이트로 마감하는 등 원형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 원래는 기존 건물과 조금 떨어진 곳에 창고를 증축하였다가 어느 시기엔가 그 사이를 다시 이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증축과정에서 이음새 부분이 불안정해짐으로써 부분적으로 벽체가 많이 훼손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였다.
  - 증축된 창고 건물의 전면에도 상가건물을 달아내 기존 창고건물과 다르게 변형된 상태이다.
- 4) 문화재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기존 등록문화제조차 현재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창고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소유주나 정읍시의 입장에서는 부지확보가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의지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된다.
  - 등록문화재 전면으로는 커다란 상가건물이 있고 그 사이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등 활용의지가 있다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존 등록문화재의 서쪽으로 도로가 있고 남쪽에는 주차장이 있어 260번지를 포함하지 않고서도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다. (맹지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불합리함)
-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창고로서 건축적 가치는 현격히 떨어지고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됨
  - 기존 등록된 창고건물만으로도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상황이 활용의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260번지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등록 가치가 없다고 판단됨
- 7)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의견 없음

## 4.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지정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에 대하여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명칭 : 창원 진해우체국(등록 제291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1번지
  - 수량 : 1동(451.9㎡)
  - 건립시기 : 1912년
  - 구조 : 목조
  - 보호구역 :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1번지 외 1필지 10470.3㎡
- (3) 심의사항 :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지정 여부 심의
  -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2-1번지 외 1필지 1,725.6㎡ 보호구역 지정
  - ※ 기타사항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되어 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계획(보존정책과 주관)에 따라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한 변경안 심의('15.4.14.) 결과에 따른 사항임
- (4) 지정예고
  - 예고내용 :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인접 지면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예고기간 : '15. 6. 8. ~ '15. 7. 7. (30일간)
  - 예고대상 :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2-1번지 외 1필지 1,725.6㎡ 보호구역 지정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5.12)>

○ ○ ○ ○ 문화재전문위원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은 구 진해의 도심 중원로터리에 위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한 왜소화방지가 필요하고 그 조망성 확보가 요구되어지므로, 해당 사적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왜소화방지 및 그 조망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 ○ ○ ○ 문화재전문위원

- 대지 2-1, 2-2번지의 경우 이미 주변 일대가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번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 ○ 문화재전문위원

- 현재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은 당해 문화재가 위치한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1대와 주변도로를 포함하여 지정하고 있지만, 구역내 2-1대, 2-2대는 인근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섬처럼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지속적 보호관리를 위해서는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2-1대, 2-2대도 보호구역에 포함되어야 함

<근대문화재과 의견>

- 예고 내용대로 문화재 보호 구역을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7명, 찬성 7명

## 5. 사적 제157호 「환구단」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문화재 구역 내 계단실 개선 (엘리베이터 지상층 연결) 및 통로 캐노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문화재 구역 내 지하주차장 계단실 개선 및 통로 캐노피 설치를 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신세계조선포털 외 1
- (2) 대상문화재 : 환구단 (사적 제157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번지(당해 문화재 구역)
  - 신청내용 : 호텔 지하주차장 연결 계단실 개선 및 통로 캐노피 설치
    - 계단실 : 면적 변동 없음, 높이 0.5m 증가, 지상층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 통로 캐노피 : 길이 20m, 폭 2.4m, 높이 4.1m 설치
- (4) 심의사항 : 계단실 개선 및 통로 캐노피 설치에 대한 적정성 심의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5.7.20)>

- 문화재위원 ○○○, ○○○, 전 문화재위원 ○○○
  - 문화재인 황궁우를 배경으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게 되어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 판단되며, 통로의 덮개 또한 문화재를 가리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됨

#### <근대문화재과 의견>

-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호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출석 7명, 찬성 7명

## 6.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현상변경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주변에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광장 시설물 설치를 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 (2) 대상문화재 : 구 서울역사 (사적 제284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28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28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 1,2구역)
  - 신청내용 : ‘구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광장에 시설물 설치
    - 고가도로 보수보강 : 바닥판, 거더, 코핑부, 기둥부 등(일부구간 전체 철거 후 신설)
    - 시설물 설치 : 건축면적 470㎡, 지상 1층(높이 17m), 철근콘크리트조
- (4) 심의사항 :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광장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적정성 심의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5.7.20)>

- 문화재위원 ○○○, ○○○, 전 문화재위원 ○○○
  - 서울역 광장과 보행화되는 고가도로의 동선흐름을 고려한 최적화된 규모 검토와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을 고려한 위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근대문화재과 의견>

-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서울역을 가리지 않게 고가도로에 이르는 진입로의 규모 및 위치를 고려한 계획안 마련 필요
- 문화재위원(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고가도로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서울역 주변의 역사·환경 및 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안 마련 필요
- 출석 7명, 찬성 7명

## 7.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익산시장

(2) 대상문화재 : 익산 나바위성당(사적 제318호)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화산리)

(3) 주요내용

- 기본방향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 주차장 확보와 진입체계 개선

- 보존 : 문화재 원형 보수·복원(성당, 사제관, 강당)

- 정비

· 성당영역 : 바닥 포장, 배수로 정비, 건물 철거 및 리노베이션, 주변 수목 정비 등

· 화산영역 : 망금정 해체보수, 김대건신부 성상·소쇄신부묘 등 정비

· 피정의집과 운동장 영역 : 피정의집 리노베이션

· 착지처(추정)영역 : 설명판·조형물·편의시설 설치, 조경 식재 등

· 안내판정비 : 통일된 안내판 형식과 문안으로 정비

- 활용

· 전시공간 신설 : 사제관 등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야외 벽화 전시

· 성당 옛길 활용 : 골목길 체험, 성지 주변 탐방

· 천주교 순례길 연계

- 추진기간 : 1단계('15~'19), 2단계('20~'24), 3단계('25~'30)

(4) 검토사항 : 종합정비계획 내용의 적정성 검토

라. 검토의견

〈근대문화재과 의견〉

- 익산 나바위성당의 원형보존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향후 예산 및 활용방안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함
- 출석 7명, 찬성 7명

## 8. 「연동교회 전도지」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연동교회 전도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연동교회 전도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연동교회 전도지	1매	세로21.1× 가로21.3cm	1904년 전후 추정	양지	신연활자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 세로 50-1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

- ○ ○ ○ 위원
  - 민목사(밀러)가 발행한 한글 전도지는 그의 기록에서 보듯이 수 십 만장이나 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전도지 한 장만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 낱장의 전단지여서 전하는 것이 드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사한 전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관 기관에 소장 중인 민목사(밀러)가 발행한 전도지를 총괄적으로 조사한 뒤 등록문화재 지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위원
  - 이 전도지는 세브란스병원이 완공되기 이전인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한국근대사에서 1885년 4월 10일 고종의 후원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다량의 인쇄물 가운데 하나이며, 제중원을 의료 선교활동의 필요성에서 간접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선교 자료와 차이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다른 자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유물로 판단된다.

○ ○○○ 교수(○○대학교)

- 1900년대 초반에 작성된 이 전도지는 서울, 경기, 충청지방의 연결교회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상당히 많은 양을 인쇄하여 배포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사한 전도지와 비교 검토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서의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은 우선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근대문화재과 의견>

- 2015년 현재 진행중인 ‘근현대문화유산 개신교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를 진행중이므로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위원 : 『하나님의 감사함』 전도지
  - ○○○ 위원 : ‘하나님께 감사함’ 선교지
  - ○○○ 교수 : 연동교회 전도지
- 근대문화재과 : 『하나님께 감사함』 전도지

바. 의결사항 : 보류

- 2015년도 ‘근현대문화유산 개신교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에 포함하여 종합 검토 필요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연동교회 전도지」 조사보고서 1부.

# 「연동교회 전도지」 조사보고서

1. 명 칭 : 연동교회 전도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위원>

### 1) 현황

- 20세기 초기에 인쇄된 순 한글의 전도지임. 신연활자로 양면에 인쇄되었으며 보존 상태는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연동교회(蓮洞教會)의 역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S.F. Moore)가 김영옥 등의 도움을 받은 1893년부터 시작된다. 이후 그레함 리(Graham Lee), 밀러(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 기퍼드(D.L. Gifford) 등의 선교사와 서상륜, 김홍경 등의 내국인의 전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 이 중에서 민노아(閔老雅) 또는 민목사로 알려진 밀러 목사는 뉴욕의 유니온신학교에서 1982년에 학위를 받아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본부 해외 선교부의 임명을 받아 그해 11월 15일에 부인인 라이네케(Miller Anna Reinecke)와 함께 내한한 뒤 45년간 국내에서 전도를 한 인물이다. 그는 서울에 오자 교육사역(1892~96), 복음사역(1896~1905)을 담당하였다. 곧 1893년에는 제3대 예수교학당장(현재 경신학교), 1894년부터는 한글성서번역에 관여하였으며, 1896년에 연동교회가 설립되는데 초석의 역할을 하였다.
- 그는 특히 문서선교를 위한 전도지(gospel news, evangelistic paper)를 직접 만들어서 보급하였다고 한다. 그의 첫 번째 전도지는 “두 개의 질병”, 즉 콜레라와 죄에 대한 것과 그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전도지는 한국어로 쓰여진 “올바른 마음을 얻는 법”이었는데 거듭 인쇄되어 이후 약 30년 동안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는 순수복음 전도지와 금주 및 계몽운동 전도지, 육아 및 교육에 관한 전도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문서선교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도지의 사도” 또는 “문서전도의 창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 그는 서울 연동교회 외에도 충청북도와 경기도 지역을 주로 선교하였다. 곧 그는 1901년 9월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배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04년에 청주로 이사한 뒤 김홍경 장로와 함께 시장과 가정에서 전도한 결과, 마침내 청주지역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한 청주읍교회(현 청주제일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신연활자로 앞뒤에 인쇄된 동은박물관 소장의 전단지지의 말미에는 서울 연동 민목사(밀러) 다음에 경기도의 광주, 양지, 안성과 충청북도의 진천, 청주, 조치원, 회인 등의 지명이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아 이 전단지지는 민목사(밀러)가 이 지역에서 선교할 때의 전단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단지지의 간행

시기는 1902-4년 사이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전단지의 끝에는 “서울 제중원에 고명한 영국의원이 병인치료하오니”라는 홍보용 문구가 있으므로 제중원을 대체한 세브란스병원이 설립되던 1905년 이전에 간행된 사실이 거듭 확인된다. 그런데 1903년 12월에 순회한 지역에 대해 민목사(밀러)는 “우리들은 법주리에서 동쪽으로 27마일 떨어진 공림의 한 모임에 대해서 들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전단지에는 선교지역인 “공림 회인 버주리(법주리)”가 수록되어 있고, “아래(에) 기록한 교당을 찾아가서 더 물어도 보고”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발행 시기는 공림과 법주리에 교당이 설립된 이후가 된다. 그러므로 이 전단지는 민목사(밀러)가 1904년 초기에 경기도와 충청북도를 선교하기 위해 발행한 전도지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전도지에 제중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일반 서민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료사역이었기 때문이었다. 곧 의료사역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수단이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주 전도지역이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이었으므로 직접적인 의료사역 대신에 제중원을 소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한편 “전도지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민목사(밀러)는 선교를 위해 수 십 만장의 전도지를 보급하였고, 그 종류도 다양하였다. 청주에서 선교할 때의 그의 기록에는 “그 지방 서점은 많은 양의 전도문서 - 소책자 6,757권, 전도지 30,000장 - 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영향력을 지닌 센터였다. 약 오천 명의 사람이 도시를 방문하는 장날에는 남학생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때때로 하루에 3,000명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다. 또 이후의 일이지만 “1908년에는 장날에 8,000장, 그 해에 모두 60,000장이 사용되었다. 1910년에는 어느 장날에 10,000장, 겨울에는 13,000장 등 그 해 125,000 장의 전도지들이 배포되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에 배포한 전단지도 그의 기록에 남은 것만도 수 만장이나 된다.
- 동은박물관 소장의 “『하나님께 감사함』 전도지”는 1904년 초에 민목사(밀러)가 김홍경 등과 함께 경기도와 충청북도를 전도할 때 사용한 전도지의 하나이다. 특히 제중원을 홍보하는 기록도 있어서 20세기 말기 의료선교의 한 측면을 살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전단지라고 하겠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민목사(밀러)가 발행한 한글 전도지는 그의 기록에서 보듯이 수 십 만장이나 되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였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전도지 한 장만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낱장의 전단지여서 전하는 것이 드물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사한 전도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관 기관에 소장 중인 민목사(밀러)가 발행한 전도지를 총괄적으로 조사한 뒤 등록문화재 지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문헌자료

- 박준형, 『하나님께 감사함』 전도지(『연세의사학』 제12권 제1호, 2009. 6)
- 김시찬, “민노아(Frederick Scheibin Miller) 선교사의 청주지역 선교”(서울

장신대학교 대학원, 2010)

- 김동군, “기독교의 충북지역 활동”(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 F. S. Miller, “Chongju”, 『The Korea Mission Field』 (1906. 9)

#### 5) 종합의견

- 민노아 목사(밀러)가 발행한 한글 전도지는 수 십 만장이나 되므로 총괄적으로 조사한 뒤 추후 등록문화재 지정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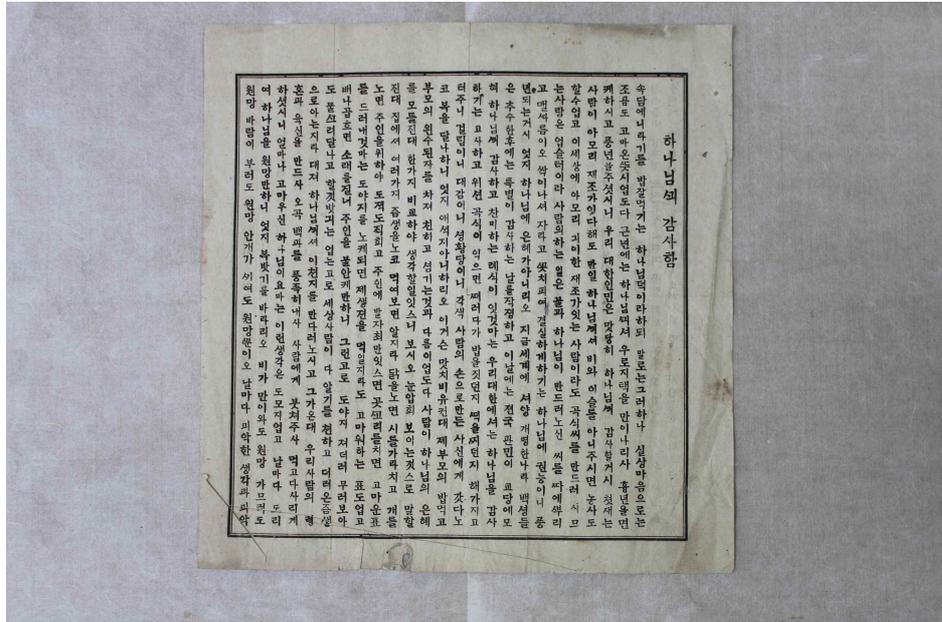
- <연동교회 전도지> 로 알려진 이 문서는 인쇄물로, 2004년 3월 16일 코베이 경매를 통하여 구입하였다고 전한다.
- 문서의 첫머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란 제목을 달았고, 끝부분에는 “또 가르쳐 줄 일은 서울 제중원에 고명한 영국의원이 병인을 치료하오니 병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시오”라고 하여 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
- 문서의 아랫부분에 일부 구김과 접힘 현상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 2)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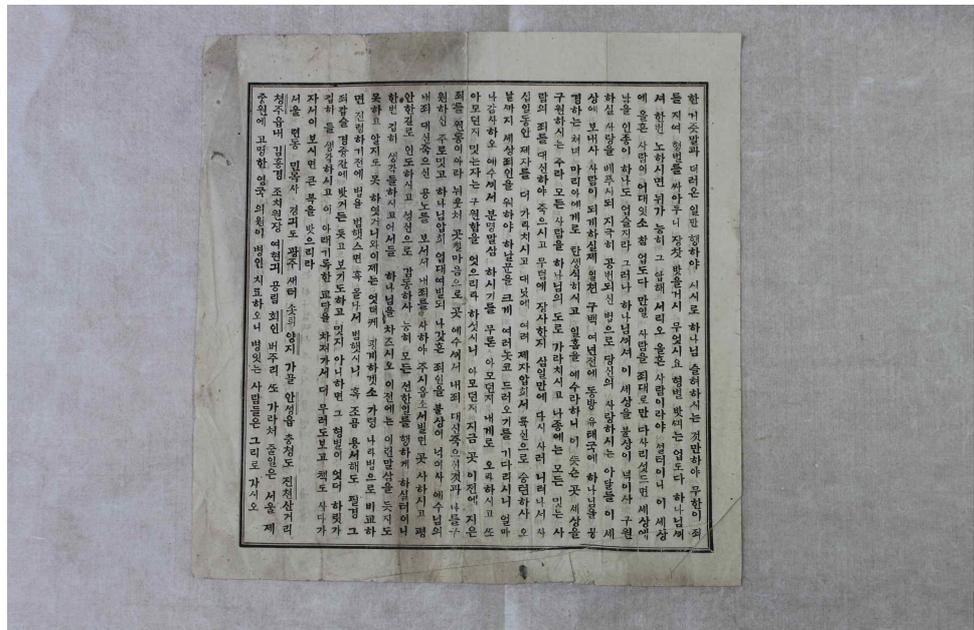
- <연동교회 전도지> 는 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전도의 주체는 물론 제작 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련동 민목사 경기도 광주 새터 솟터 양지 가골 안성읍 충청도 진천사거리 청주읍내 김흥경 조치원장 여현기 공림 회인 버주리 또 가르쳐 줄 일은 서울 제중원에 고명한 영국의원이 병인을 치료하오니 병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시오 ”*

- 이같이 내용 중에는 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예배처(禮拜處)로서 경기도 광주 일원을 포함하여 광주, 양지, 안성 그리고 충청도 진천, 청주, 조치원, 공림, 회인 지역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전도지는 세브란스병원이 완공되기 이전인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전도지는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 한편 문서의 끝부분에 나오는 서울 련동 민목사는 장로교 선교사 민로아(閔老雅, Frederick S. Miller, 1866~1952)를 지칭하고 있어 문서의 성격이 더욱 분명하다. 곧 서울 연못골교회(연동교회)의 기초를 닦은 인물가운데 한 사람인 민로아(閔老雅) 목사의 경기도 및 충청도 선교 활동에 관련된 문서인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전면)



하나님께 감사함(후면)

- 연동교회(蓮洞教會)는 189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모삼열(牟三悅, Moore, S. F.)의 조사(助事) 김영옥(金泳玉)과 천광실(千光實)이 전도에 힘쓴 결과 얻어진 신도들로 시작된 교회이다. 이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이길함(李吉咸, Lee Graham)과 민로아(閔老雅, F. S. Miller), 기보(奇普, D. L. Gifford) 등 선교사와 조사 서상륜(徐相崙)과 김흥경(金興京)의 지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 더욱 1894년 현 연못골 대지를 미국 북장로교에서 매입하여 선교부 기지로 사용하면서 경신(敬新)과 정신(貞信)의 두 중등학교가 연동교회 옆에 자리잡게 되었고, 그 결과 연동교회는 교육적이며 지성적인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 1900년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게일(Gale, J. S. 奇一)이 담임목사로 시무하기 시작하였고, 1904년에 조사 고찬익(高燦益)을 장로로 장립하여 처음으로 당회(堂會)가 조직되었다.
- 연동교회에는 게일 목사와 고찬익 장로를 비롯하여 독립협회 회원들, 특히 이상재(李商在), 김정식(金貞植), 이원공(李源兢), 홍재기(洪在箕), 유성준(兪星濬), 박승봉(朴勝鳳), 민준호(閔濬鎬) 등이 교회를 위해 크게 활약하였다.
- 특히 1919년 3·1운동 당시 연동교회는 최남선(崔南善), 이갑성(李甲成), 이상재, 함태영(咸台永), 신(辛)마리아, 신의경(辛義卿), 김필례(金弼禮) 등 민족지도자들이 모인 독립운동의 온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게일 이후 담임목사는 함태영(咸台永, 1929~1941 이하 재임기간)·전필순(全弼淳, 1941~1961)·백리언(白理彦, 1962~1966)·김형태(金炯台, 1967~1989)·이성희(李聖熙, 1990~) 등으로 이어졌다
- <연동교회 전도지>에 나오는 ‘민목사’ 곧 선교사 민로아(閔老雅)는 이미 1900년부터는 조사 김홍경과 함께 경기 남부와 청주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1900년 청주장터를 찾았던 사실은 당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청주읍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감리과 선교사 서원보가 당지에 와서 전도함으로써 천행균과 여인 김나오미가 믿었다. 이때 장로과 선교사 민노아와 김홍경이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협력 전도한 결과로 유망한 청년들 가운데 김원배 방홍근 이영균 등이 귀주신교한 후 본읍 남문내에 예배당을 지으니 교회가 성립되어 점차 흥왕하였다”(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중에서)*

- 당시 세워진 청주지역의 교회는 1904년 세워진 청주읍교회(현 청주제일교회)로 추정되고 있다. 처음엔 남문 밖 김홍경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야 했다. 마침 교회 최초 성도 중 한명이었던 김원배가 유언으로 100원을 현금하면서 남문 안에 교회를 세웠다. 현재 교회가 있는 자리인 남문로1가 154 지역은 청주 영장의 관사와 죄인들을 가두는 옥사가 있던 자리였다. 천주교 병인박해 때 충남 해미와 함께 충청도의 수많은 천주교인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던 곳이다.
- 곧이어 민로아 선교사는 1905년 6월 부인과 세 자녀를 데리고 청주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청남학교(청남초등학교 전신), 청신여학교, 청동학교, 청서학교, 청북학교 등을 세워 이 지역에 신교육을 보급했다. 청남초등학교의 경우 1904년 11월 김태희(金泰熙) 외 2명이 발의하여 청주군 남주내면 웅성리에 사립 광남학교(廣南學校)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는데, 1908년 8월 설립인가와 함께 교명을 청주청남학교로 개칭하였고, 설립자 겸 교장에 예수교장로회 미국인선교사 밀러(閔老雅)가 취임하였다.
- 한편, 동아일보 1922년 8월 20일 기사에서도 충청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이 확인된다.

조치원교당신축

민로아목사의 선교하에 閔老雅牧師 呂賢基 領袖의 열심 인도로 교회를 유지하

여 오던바 평북 宣川 부인전도회에서 파견한 白重生 전도사가 4월 10일 본 교회에 전근된 이후 유년주일학교가 설립되어 생도가 오십명에 달하며 일반교인은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이백사오십원을 수합하고 且舊日禮拜堂及附屬家屋全部를 放賣하여 팔백원 예산으로 반양식 19칸을 8월 4일부터 건축에 착수하여 역사가 거의 중공중인바 9월 9일에 낙성식을 거행할 터이라더라 (조치원)

- 민로아 선교사에 대한 기록은 동아일보 1937년 10월 10일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청주선교계은인 민로아목사 서거

청주 제청삼십여년간 선교상 다대한 공적을 끼친 선교계는 민로아목사는 지난 6일 뇌빈혈로 세상을 떠났다하는데 장식은 8일 오전 십일시에 쿵청로회장으로 청주교회당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 이같은 일련의 기록은 <연동교회 전도지>에 나오는 ‘민목사’ 곧 선교사 민로아 (閔老雅, Frederick S. Miller)가 이미 1900년부터는 조사 김흥경과 함께 경기 남부와 청주를 중심으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따라서 <연동교회 전도지>는 그 성격과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연동교회전도지>는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민로아(閔老雅, 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 목사와 그 선교 활동을 도운 김흥경(金興京) 등이 충청도 일대의 전도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 전도지의 첫머리는 ‘하나님끼리 감사함’이란 제목을 달았고, 끝부분에는 “또 가르쳐 줄 일은 서울 제중원에 고명한 영국의원이 병인을 치료하오니 병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시오”라고 하여 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
- 이 전도지는 세브란스병원이 완공되기 이전인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한국근대사에서 1885년 4월 10일 고종의 후원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다량의 인쇄물 가운데 하나이며, 제중원을 의료 선교활동의 필요성에서 간접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선교 자료와 차이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다른 자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유물로 판단된다.

### 4) 문헌자료

-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 (고춘섭 편저, 연동교회, 2004)
- 『연동교회 100년사』 (연동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 연동교회, 1994)
- 『연동교회 90년사』 (연동교회90년사 편찬위원회, 연동교회, 1984)
-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차재명, 1928)
-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Harry, A. Rhodes, 1934)

### 5) 종합의견

- <연동교회전도지>는 연동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민로아(閔老雅, Frederick Scheiblin

Miller, 1866~1937) 목사와 그 선교 활동을 도운 김흥경(金興京) 등이 충청도 일대의 전도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전도지의 첫머리는 ‘하나님 께니 감사함’이란 제목을 달았고, 끝부분에는 “또 가르쳐 줄 일은 서울 제중원에 고명한 영국의원이 병인을 치료하오니 병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가시오”라고 하여 현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

- 이 전도지는 세브란스병원이 완공되기 이전인 1904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전도지로 인쇄된 것이다. 또한 한국근대사에서 1885년 4월 10일 고종의 후원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만, 다량의 인쇄물 가운데 하나이며, 제중원을 의료 선교활동의 필요성에서 간접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선교 자료와 차이나는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명칭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다른 자료와의 충분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유물로 판단된다.

### <○○○ 교수>

#### 1) 내용 및 특징

- 이 전도지는 1900년대 초반 서울 연동교회에서 전교를 목적으로 작성하여 일반인들에게 배포한 전도지이다. ‘하나님 께니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앞면과 뒷면에 기독교리를 소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에 제중원을 소개하고 있다.

#### 2) 기타

- <연동교회 전도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에서 2004년 3월 구입한 것이다. 연동교회에서 전교를 위하여 배포한 전도지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제중원의 치료에 관한 소개가 포함되어, 의료선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연동교회 전도지>는 1900년대 초반에 작성되었는데, 서울, 경기, 충청지방의 연결교회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상당히 많은 양을 인쇄하여 배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유사한 전도지와 비교 검토 등의 작업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서의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은 우선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4)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은 우선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9.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	소유자	소재지	비고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	1매	세로27.6× 가로42.9cm	1919년	양지	석인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 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

- ○○○ 위원
  -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의 독립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고, 그 잔인함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또 기독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연맹과 세계 장로교연합회에 보낸 것

이지만 그들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또한 이 문서는 연세대학교 130주년 기념을 위해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의 증손녀인 쉘라 호린(Sheila Horine)의 기증에 의해 환수(수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 ○ ○ ○ 위원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은 1919년 5월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교우의(에)게’란 제목의 한글 편지를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 본 문서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저항 의식을 담은 역사적 자료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영향력을 주었던 문서이다. 실제로 1919년 9월 9일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운홍에 의해 당시 백악관과 국무장관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 ○ 교수

- <대한국기독교교회대표자 호소문>은 그 자료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미국 내 기독교 관련기관이나 선교부 등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919년 전후 작성된 다른 독립운동 관련 문건 등과 비교한 후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대문화재과 의견>

- 2015년 현재 진행중인 ‘근현대문화유산 개신교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를 진행중이므로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 ○ 위원 : 『만국 예수 교우의게』 (만국 예수 교우에게)
- ○ ○ ○ 위원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 호소문

- ○○○ 교수 : 대한민국야소회대표자 호소문
- 근대문화재과 : 대한민국야소교회대표자 호소문

※ 참고

###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동산)

제정 2013년 7월 4일 문화재청 예규 제122호

1.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물명」만을 부여한다.
2. 장소적 의미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가. 장소적 의미의 소장처(소재지)가 중요하거나 함께 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처(소재지)명 + 유물(명)」로 한다.
  - 나. 발견된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발견 장소 + (발견) + 유물(명)」로 한다.
3. 소장자 또는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가. 소장자(개인·단체·기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자(개인·단체·기관) + (소장) + 유물(명)」로 한다.
  - 나. 특정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로 하되, 별도의 유품(유물)의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4.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로 한다.

**바. 의결사항 : 보류**

- 11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립운동 유물과 관련한 유물로서 검토 필요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  
조사보고서 1부.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 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위원>

### 1) 현황

- 앞면은 한글과 한자, 뒷면은 영문으로 인쇄된 낱장임. 반접되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함.

### 2) 내용 및 특징

- 1919년 5월에 안승원,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3.1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와 한국인들의 평화적 저항을 대비시키며 전 세계 기독교도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호소문 성격의 문서이다. 문서의 제목은 「만국예수교우에게(만국 예수 교우에게)」이다. 띄어 쓰지 않은 순 한글(숫자는 한자 표기)의 본문에 이어 “主後一千九百十九年五月 日」大韓國耶蘇教會代表者」(주후일천구백십구년오월 일」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라는 시기와 단체명이 있다. 다음 행에는 목사인 안승원(安承源, 1872~1941), 손정도(孫貞道, 1872~1931), 장덕로(張德魯, 1883~?), 김병조(金秉祚, 1877~1948), 조상섭(趙尙燮, 1884~?), 배형식(裴亨湜, 1874~1955), 이원익(李元益, 1885~1963)과 장로인 조보근(趙普根), 김시혁(金時赫), 김승만(金承萬), 장봉(張鵬) 등 모두 11명의 성명이 있고,<sup>1)</sup> 성명 아래에는 인장(안승원만 지장)을 찍어 놓았다. 반대쪽 면에는 “(Translation)”아래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라는 영문제목 아래 본문의 영역(英譯) 그리고 11명의 영문성명이 있고, 그 시기를 “May 1st, 1919”과 같이 5월 1일로 밝히고 있다. 11명의 영문성명의 배열순서는 한자로 표기된 반대쪽 면과 차이가 있다. 또 배형식에 해당되는 인물의 영문표기가 “PAI BYUNG SEH”로 되어 있는데 식자(植字)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인다.
- 여기에 등장하는 목사 중에서 안승원, 김병조, 장덕로, 이원익, 조상섭 등은 1919년 4월 13일에 김구(金九)와 함께 상해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시정부에서는 조선을 국내외 11지방으로 구분하여 지방 선거를 하였는데 당시 의장은 손정도였다. 4월 23일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2회 의회자료에 따르면, 출석의원 명단에는 손정도, 배형식, 장덕로, 김병조, 안승원 등이 보인다. 5월 23일에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대표 여운형이 파리로 갈 때, “목사 안승원, 김병조, 손정도, 장덕로, 이원익, 조상섭, 장로 김시혁, 김승만, 장봉, 조선의 등의 연서(連書)로 국제연맹 및 만국장로교 연합회에, 조선교회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심하

1)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4의 “第七章 獨立運動에 關한 書類”에는 “大韓耶蘇教代表 十人이 上國際聯盟會 及 長老教聯合總會 書 呂運弘使提出”에는 “一九一九年 五月 二十三日”이라는 날짜에 이어 裴亨湜을 제외하고 朝鮮耶蘇教會代表 10명만이 수록되어 있다.

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여운형에게 탁송함”이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보낸 것으로 보인다.<sup>2)</sup>

- 내용은 “슬프다. 우리 한국이…일본의 군국주의를 만나 병탄을 횡피한 후로 선교의 자유가 박탈되고…一九一一年에…一百五인의 인도자들을三年間 무죄슈감해야…심지어 어린 아희와 약혼 부녀까지 말할 수 없는 풍욕과 악행을 당하여 스며…그 잔학한 행동과 처참한 경상은…글에 다 기록할 바 안인고로…오직 전 룡전지하신 하느님께서 능히 우리를 사랑하시여 구원하실 줄을 믿는 고로…여러분씩 간구하시오니…동시에 여러분의 심후한 도덕덕 원조를 바랍니다.”라며 당시 일제가 행하고 있는 능욕과 악행을 그치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호소문이다.
- 반대쪽 면에 있는 영문으로 된 내용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운홍(여운형의 동생)씨가 타자로 친 자기 소개편지와 함께 영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그해 9월19일에 국무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권의 대미교섭문서에 따르면, “여운홍이 미 국무장관 랜싱에게 전달한 한국기독교 교우의 호소문”<sup>3)</sup>이라는 제목아래에 “발신일 1919년 9월 17일」 발신자 대한민국 통신부 여운홍」 수신자 미 국무장관 랜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만국예수교우의게」는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고 억압한 실상을 전 세계의 기독교 교우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 뿐 아니라 미국의 윌슨대통령과 랜싱국무장관에 보내어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한 사실도 알 수 있다.
- 이 문서는 재미 한인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인 신한민보(新韓民報)의 1919년 10월 2일자에 “내지 각 교회 대표자들이 세계 예수교도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제목하에 한글과 한자로 된 면을 원본 그대로 영인하여 소개하였다. 이 문서 중의 하나는 현재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6일에는 미주 한국일보(The Korea Times)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의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Main/Main.jsp>)에는 이 문서가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sep 21. 1920 SECRETARIES”라는 직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본의 사진이 아닌가 한다.
- 이 문서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의 독립운동 이후 임시정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일제의 만행에 저항하고, 그 잔인함을 미국과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또 기독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연맹과 세계 장로교연합회에 보낸 것이지만 그들이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또한 이 문서는 연세대학교 130주년 기념을 위해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의 증손녀인 쉘라 호린(Sheila Horine)의 기증에 의해 환수(수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 3) 문헌자료

-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Main/Main.jsp>)

2) 『朝鮮民族運動年鑑』 과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이 자료에는 裴亨湜의 영문표기가 “Pai Byung Sah”로 되어 있다.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

#### 4) 종합의견

- 국제연맹과 세계 장로교연합회에 보낸 독립운동사 자료의 하나이며, 해외에서 환수(수증)된 문화재이므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대상으로 판단됨.

### <○○○ 위원>

#### 1) 현황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세로 429mm × 가로 276mm의 인쇄물이다. 한쪽 면은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다른 한쪽은 한글로 작성되었다.
- 연세대학교 130주년 기념으로 에비슨의 증손녀인 Sheila Horine이 기증한 유물이다.
- 문서의 보존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 2) 내용 및 특징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우선 한글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만국예수교 교우의게

대한예수교도 50만 명을 대표한 우리는 만국예수교우에게 삼가 글을 올리옵나이다. 슬프다 우리 한국이 위급조망의 때를 당하여 어육잔포의 화를 만나 이에 인도의 정의를 가지고 사회를 일가로 아는 여러분께 향하여 피를 뿌리며 눈물을 머금고 세상에 호소하오니, 상제위인의를 본받으며 인류의 행복을 도모하시는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살피시어 유력한 협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해동의 고국으로 단군이 개국한 이후로 4천 년의 역사를 가지며 2천만민의 결사를 고수하던바 상제께서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지 불과 30여 년에 50만 명 교도가 구름같이 일어나며, 3천여 곳의 교당이 전국에 편만하여 동양을 예수교화하는데 하나의 큰 원천이 되었으니, 불행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만나 병탄을 횡피한 후로 선교의 자유가 박탈되며 교육의 기관이 유린되어 일국의 성기가 엄엄하더니, 1911년에 허무한 암살 안은 예수교 박멸의 주의에서 나온바, 목사 장로 등 105인의 인도자들을 삼년간 무죄유감하여 혹형이 여지없다가 세계의 공론을 의지하여 악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그 독슈와 음모가 갈수록 심한지라 우리 대한민족은 깊이 참고 굳게 견뎌냄으로 기회를 기다리오니 요행 썩민이 국군주의가 파괴되고, 민족자결의 복음이 세계를 진탕하는 이때라 우리의 쌓이고 가득하였던 불편은 일시에 폭발하여 전국일치로 독립을 주창하며 자유를 회복하고자 할 때 한곳도 폭렬한 행

동이 없고 평화적 수동적 반항을 계속할뿐이어서, 저 완명무도한 일인은 악독을 자사하여 살생과 구타가 여지가 없으며, 경향감옥이 서름이 없도록 인민을 착취하며 심지어 어린아이와 약한 부녀자까지 말할 수없는 능욕과 악형을 당하였으며, 교회당과 학교의 불살음을 입은 자 백유여쳐라, 그 잔학한 행동과 처참한 정상은 도저히 이와같은 짧은 글에 다 기록할 바 안인고로, 이에 그치오며 다만 이 형편극지에 안즌 일반 대한민족은 오직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실줄을 믿는 고로, 이같이 여러분께 간구하오니,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동시에 여러분의 심후한 도덕적 원조를 바라옵니다.

서기 1919년 5월 일

大韓國耶蘇教會代表者

牧師 安承源

孫貞道

張德櫓

金秉祚

趙尙燮

裴亨湜

李元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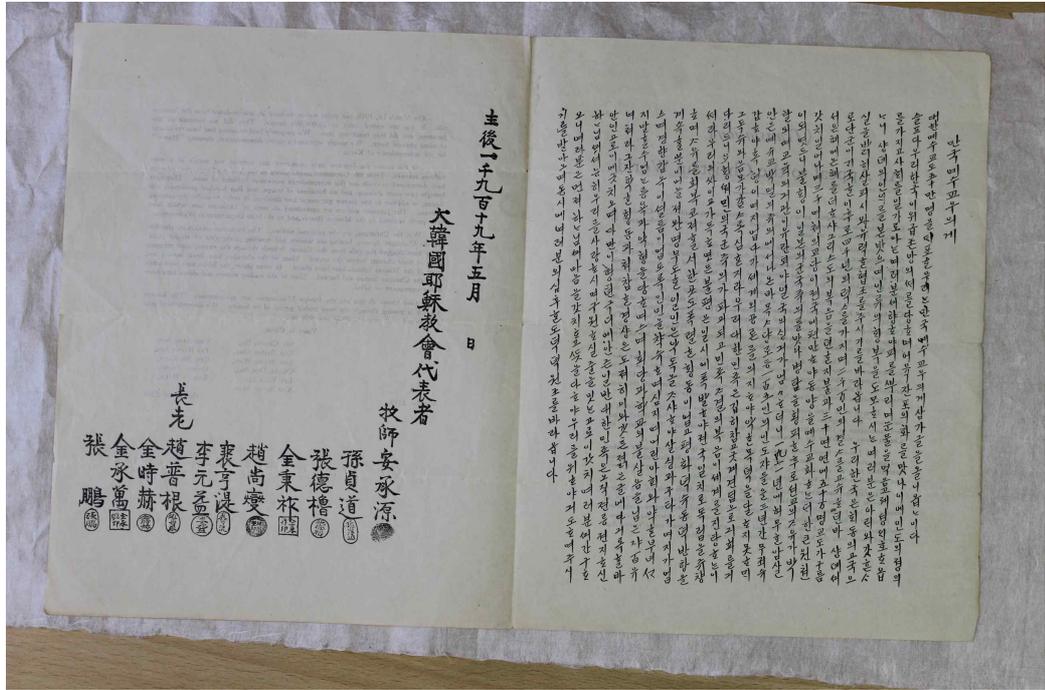
長老 趙普根

金時赫

金承萬

張鵬

- 조사 대상 문서는 그 첫머리에 ‘만국 예수 교우의(에)게’란 제목을 달고 “대한예수교도 50만 명을 대표한 우리는 만국예수교우에게 삼가 글을 올리옵나이다.”라고 글을 시작하여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와 한국인들의 평화적 저항을 대비시키며 기독교도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 말미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줄을 믿는 고로…… 여러분의 원조를 바라옵니다.”라며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당부하면서 끝을 맺고,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大韓國耶蘇教會代表者)로서 목사(牧師) 안승원(安承源)을 포함하여 손정도(孫貞道), 장덕로(張德櫓), 김병조(金秉祚), 조상섭(趙尙燮), 배형식(裴亨湜), 이원익(李元益) 그리고 장로(長老) 조보근(趙普根), 김시혁(金時赫), 김승만(金承萬), 장봉(張鵬) 등 11명이 연서(連署)하였다.



만국예수교우에게(국문)

- 한편 반대면에는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란 제목으로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영문은 다음과 같다.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

*We, the undersigned pastors and elders, representing the half-million Christians in Korea, who are being persecuted by the cruel Japanese 'Government, hereby appeal to our fellow Christians of all lands.*

*Korea existed as an independent nation for more than four thousand years, with a distinct language, culture and civilization, until the year 1910, when she was annexed to Japan at the point of the sword, contrary to the will and desire of the Korean people. Ever since the annexation, we, the Christians of Korea, have been the principal sufferers. As is already known to the world, the work of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was progressing with a remarkable degree of success, but since the annexation, the work of the Church has been interfered with in every possible manner by the Japanese, and the Christians have been subjected to constant persecutions. The notorious "Conspiracy Case" of 1912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legalized persecution of the Church. The Christian leaders have been tortured, imprisoned and murdered. Bible & other Christian literature*

*have been burned and destroyed, and our children in the Mission Schools have been subjected to insults and mockery by the invaders.*

*In order to check the advance of Christianity, the Japanese authorities have given encouragement to the activities of various heathen cults in Korea, and have even introduced a spurious Christian organization that does not believe or practice true Christians principles. While they encourage the building of temples for Buddhists and Shintoists,, they are burning down Christian Churches whenever and wherever they can.*

*In spite of all these persecutions, the Korean Christians energetically continued to build up "The Kingdom of God" in Korea. They trained workers, built churches, and sent missionaries to China, Japan, Siberia and neighboring countries. The stronger the Church grows the fiercer the opposition on the part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telling the world that the Koreans are satisfied and prospering under the Japanese rule and cleverly and cunningly hid the truth of Korean martyrdom from the outside world. During all these years of bondage they have never lost their ardent love for their country and their faith in Christ.*

*During the four years of the World War the Koreans heard with joy the echo of the guns of the Allied Powers, which they believed were for the rights and liberty of all nations. They passionately believe in the great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s advocated by President Wilson. Therefore, when the great war ended, with victory for the democratic nations, we believed that the time had come when the Koreans would receive their share of justice from the hands of the victorious Christian nations.*

*On March 1st, 1919, our entire nation declared it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rule. It was the united voice of 20,000,000 people. They did no violence to the Japanese, nor did they break any laws. We purposely held ourselves free from the charge of using physical force. We simply organized a pacific demonstration, shouting "Mansei"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For this reason the Japanese have massacred and tortured our people in a most ruthless, manner. From the Governor-General down to the lowest officials, the Japanese have determined to crush out this independence movement by force of arms. They have brought two more*

*divisions and six battalions of troops, and four hundred gendarmes into Korea, in addition to the former garrison of four divisions, in order to subdue the unarmed Koreans. The Japanese soldiers are committing all sorts of barbarous acts which have been partly reported to the Mission Boards and to the State Department in Washington.*

*We, the Christians, are the principal victims. The barbarous soldiers are plundering the Christians' homes, beating old women and insulting young girls of tender years. They have dragged the girls from the Mission Schools through the streets, after stripping them of their clothing before the crowd. Many of the churches have been burned and most of the Mission Schools have been closed. In some places, the Bibles have been taken from the Christian homes and burned. Most of the leading pastors and elders have been either imprisoned or ki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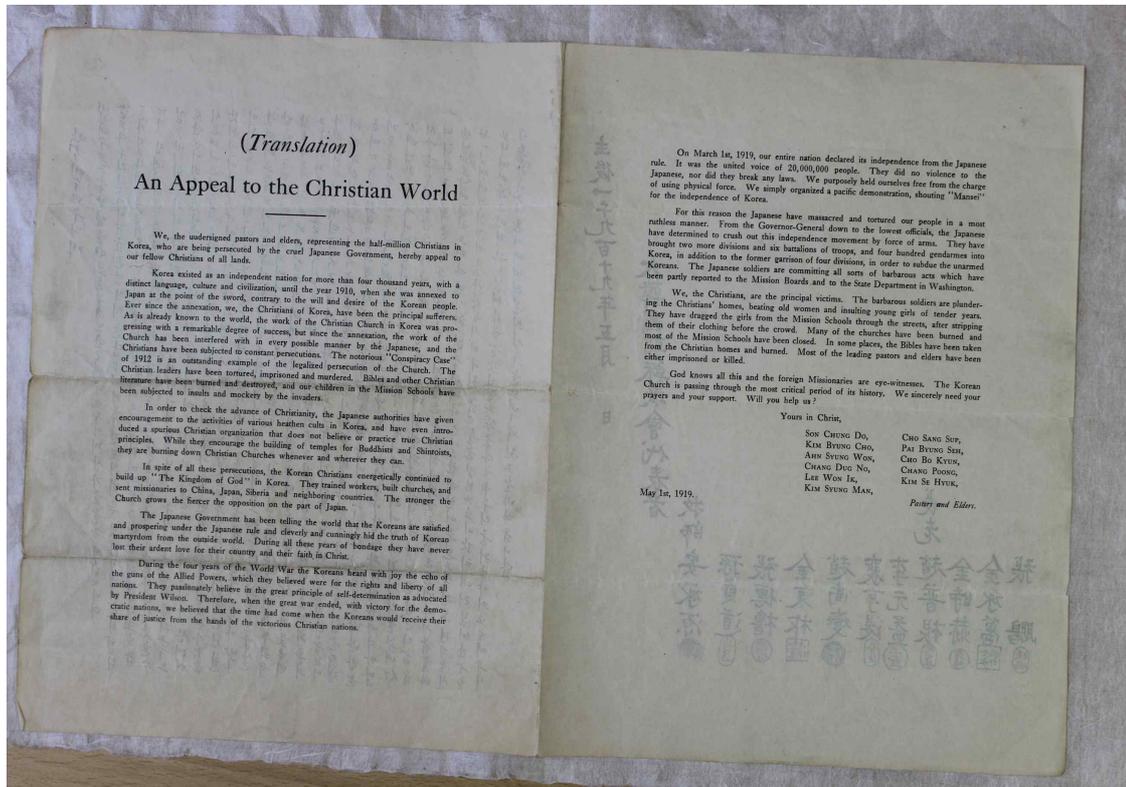
*God knows all this and the foreign Missionaries are eye-witnesses. The Korean Church is passing through the most critical period of its history. We sincerely need your prayers and your support. Will you help us ?*

*Yours in Christ,*

*Son Chung Do, Kim Byung Cho,  
Ahn Syung Won, Chang Dug No,  
Lee Won Ik, Kim Syung Man,  
Cho Sang Sup, Pai Byung Seh,  
Cho Bo Kyun, Chang Poong,  
Kim Se Hyuk, Pastors and Elders.*

*May 1st, 1919.*

- ‘*An Appeal to the Christian World*’란 제목의 영문 호소문은 당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던 서재필 박사가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 대표들은 1919년 당시 백악관과 국무장관에 호소문을 보내는 한편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이 파리에 파견될 때, 역시 손정도 목사 등 11인이 연서(連署)한 ‘한국시정진술서(韓國時情陳述書)’를 국제연맹 장로교만국연합총회 및 미주 각 교회에 보내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기도 했다.



만국예수교우에게(영문)

-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8 「구미위원부Ⅱ」에 수록된 <대미교섭문서>에는 '여운홍이 미 국무장관 랜싱에게 전달한 한국기독교 교우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확인된다. 이 문서의 발신일은 1919년 9월 17일이며, 발신자는 대한민국 통신부 여운홍(呂運弘, 1891~1973) 그리고 수신자는 미 국무장관 랜싱(Robert Lansing)이다. 여운홍은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원을 역임했고,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던 인물이다. 그가 전달한 문서는 '만국 예수 교우의(에)게'와 동일한 내용의 호소문으로 첫머리에는 본인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글을 쓰고 그 뒤에 '만국 예수 교우의(에)게'의 전문을 첨부하였다. 문서에 나오는 머리글은 다음과 같다.

친애하는 국무장관께,

본인은 한국기독교연합회(Korean Christian Union)의 호소문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우들에게 전달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연합은 외부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다른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에게 이 서한을 귀하께 전달하도록 보내 왔습니다. 가능한 이 서한이 미국 및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우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서한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치 않은 자명한 사실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 서한을 한 사람의 기독교도로서 국무장관께 보냅니다. 본인은 귀하께서 그들에게 동정심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청하건대, 국무장관께서 죽음보다 못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만국 예수 교우의(에)게’에 연서된 인물들은 모두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간단하게 그 행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안승원(安承源, 1872~1941) 목사는 일명 안원형(安元亨)이라고도 한다. 본명은 안해(安海)이며, 승원은 그의 자이다. 1910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의주동교회 유여대(劉如大) 목사와 긴밀한 연락을 갖고 신의주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3.1운동이 있는 직후 아들 병선(秉善)과 함께 상해로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해 4월 23일 상해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회에 의원으로 참석하였으며, 5월 1일에는 손정도 등과 함께 ‘대한국예수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만국예수교우에게>란 호소문을 작성, 여운형(呂運亨) 편에 미국에서 개최된 만국장로연합회에 한국 독립운동의 사정을 알리기도 하였다.
- 후일 일제에 의해 감금, 고문받았던 그는 출옥 후 용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 병선을 지원하였으나, 만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심장병이 생겨 1941년 9월 10일 신의주 ‘복음서관’에서 별세하였다
- 손정도(孫貞道, 1872~1931) 목사의 자는 호건(浩乾)이며 호는 해석(海石)이다. 1882년 7월 평남 강서군에서 출생하였다. 20세 이후 평양주재 감리교 선교사 문요한(John Z. Moor 1874~1963) 목사의 집에 머물며 송실중학교, 송실전문학교를 다녔으나, 재학 중 서울로 가 협성신학당(현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목회자로 훈련 받았다. 1911년 목사 안수를 받은 손정도 목사는 만주지역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만주의 안동, 길림을 비롯한 간도지방을 담당할 순회 전도자가 되었다.
- 1912년 하얼빈(哈爾濱)에서 조선총독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암살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전라남도 진도로 유배되었다. 1914년 진도 유배를 끝낸 이후에는 서울의 동대문교회 담임자로 파송되었다. 1년간 동대문 교회에서 목회한 이후 1915년에는 정동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여 당시 김종우 전도사와 함께 목회를 이끌었다.
- 1919년 2월 국내에서 3·1 운동 시위 계획에 참여하였고, 이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이해 4월 10일과 11일 김신부로(金神父路) 회의장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의장 이동녕이 이틀 만에 사퇴하자 4월 13일에는 이동녕의 후임으로 제2대 임시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 이 무렵 서울에서 공포된 조선민국임시정부의 평정관(評定官)에 선출되기도 했다.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 발족에 참여했고, 통합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임시

의정원 기초위원이 되었다. 1920년 1월 김립(金立)·김철(金徹)·김구(金九)·윤현진(尹顯振)·김순애(金淳愛) 등과 함께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는데 가담했다.

- 1920년 중반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감리 감독교회 동아시아 총회’(Central Conference of Eastern Asia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에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는 <대한예수교회 진정서>를 발표하였고, 1921년 3월 3일 이원익(李元益)·김병조(金秉祚)·김인전(金仁全)·조상섭(趙尙燮)·송병조(宋秉祚)·장덕로(張德魯) 등과 함께 대한야소교진정회(大韓耶蘇教陳情會)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어 국내외 각지의 교회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조해줄 것을 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 1921년 8월 임정국무원 교통총장에 임명되었고, 1922년 2월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되었으며, 8월에는 김구·여운형 등과 함께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조직하고 노공부장(勞工部長)을 지냈다.
- 1923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이탁(李鐸)과 함께 평안남도 대표로 참석하여 재정위원에 선임되었다. 홍진·이시영과 함께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만주 지린(吉林)으로 되돌아가 선교활동에 전념했다.
- 그러나 건강을 돌보지 않은 탓에 과로와 격무 그리고 고문후유증 등에 시달리면서, 1931년 1월 별세하였다.
- 장덕로(張德魯, 1884~?) 목사는 평북 신의주(新義州)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신의주의 제일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3·1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동년 5월 23일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대표인 여운형(呂運亨)이 파리로 갈 때에 한국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다는 요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맹(國際聯盟)과 만국장로교연합회(萬國長老教聯合會) 등에 발송하는데 참가하여 서명하였다.
- 1920년 2월 중국 상해의 프랑스조계 하비로(霞飛路) 팔선교(八仙橋)에 소재한 기독교 청소년회관에서 흥사단(興士團)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안창호(安昌浩)와 함께 동명학원(東明學院)을 설립하여 젊은 세대들의 지식과 애국사상 교육에 정진하였다.
- 1931년 3월 안창호 등과 함께 공평사(公平社)를 설립하여 근대적인 협동조합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급의무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3년 상해에서 흥사단 원동대회(遠東大會)가 개최되었을 때, 원동반(遠東班) 제2반장에 선출되었으며,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대회의 이사로서 활동하였으며 특무대장으로도 활동하였다. 1935년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으로 김규식(金奎植)·윤기섭(尹琦燮) 등과 활동하기도 하였다.
- 김병조(金秉祚, 1877~1950) 목사는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금령(金寧)이고, 자는 윤석(允錫)이며, 호는 일재(一齋)이다. 6세 때부터 향리의 서당에서 한학을 익혔고, 20세가 되던 해부터는 구성군 관서면 조악동에 서당을 열고 훈장 노릇을 하였다.
- 그러나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과 침탈 앞에서 근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 1903년 구성군 방현면 변산동 삼희재서당을 인수한 선생은 신식 초등학교인 변산학교로 개편하여 근대식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 1908년에 들어와 변산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개편하였다. 1913년 3월에는 36세의 나이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였다. 평양신학교는 1901년 마펏트(馬布三悅) 목사가 창설하여 1907년 첫 졸업생을 낸 기독교 장로교계통의 신학교였다.
  - 1917년 6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그 해 8월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회 목사로 활동하였고, 1919년 2월 선천남 교회당에서 평북노회가 열리게 되자 선생은 유여대, 장덕로, 김승만 등과 선천을 방문하여 양전백 목사 집에서 이승훈을 만나게 되었다. 이승훈은 평양에서는 장로교계의 원로 지도자인 길선주 목사와 만났고, 평북노회가 열리던 선천으로 내려와 선생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을 양전백 목사의 집에서 만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선생과 이명룡 유여대 양전백 등 4인을 민족대표로 선정하였다.
  - 3.1운동 이후 김병조 목사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 임정에 참여한 선생은 1920년 3월 2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외교 선전 활동과 사료 편찬에 힘을 기울였다.
  - 상해에서 임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생은 1923년 5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자 만주 서간도로 옮겨가 집안현 화전자교회와 패왕조교회를 담임하였다. 목회 활동에 집중하면서 1926년에 남만노회장, 1932년 북만노회장으로 선출되어 한인교회를 이끌어 갔다. 하지만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이후 1933년 4월 귀국 길에 올랐다. 귀국 도중 신의주역에서 일정에 의해 연행되어 앞으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일본에 협력하겠다는 자술서 작성을 강요 받았으나 끝내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 '요시찰인'으로 지목되어 일제의 항상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되었다.
  - 일제에 의해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선생은 1941년 정주군 덕언면 덕흥동 묘두산 아래로 거처를 옮겨 은둔하였고, 은둔지에서 감격적인 8.15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자 선생은 1945년 9월 조만식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민족 독립국가 건설운동에 나섰다. 특히 소련군의 북한 공산화 조치에 반대하여 청년들을 모아 같은 해 11월 광복단을 조직하여 반소, 반공, 반탁운동을 전개하였다.
  - 그러던 중 선생은 1946년 12월 24일 정주에서 체포되어 신의주의 소련군 특무사령부로 이송되었고, 이후 1947년 2월 20일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옮겨진 고 결국 1950년 가을 73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 조상섭(趙尙燮, 1884~1942) 목사는 호는 강구(岡丘)이며, 조청해(趙淸海), 최국선(崔國善) 등의 별명도 가지고 있었다. 1884년 11월 7일 평북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1907년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듬해 세례를 받았으며 1914년부터 의주군 고진면 남제, 용상, 낙원 등 세 교회 조사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1916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9회)하였으며 그해 평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제, 용상, 낙원 세 교회 목사로 계속 시무하게 되었다.
  -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하여 그해 4월 13일 상해에서 개최된 제2차 임시정부 의정원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통한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 학무국 차장을 오래 역임했으며

- 1920년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서간도 지역을 돌며 연통제 및 교통국 활동 사항을 점검하였다. 1921년에는 대한적십사회 상의원으로 피선되었다. 1922년에는 김구, 여운형과 함께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설립, 군인양성 및 독립운동 비용조달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4년 상해에 있는 거류민 자녀교육을 위한 학교인 인성(仁成)학교 교장이 되어 활동하였으며 1929년에는 ‘상해한독당(上海韓獨黨)’ 창당에 참여하기도 했다.
- 1941년경 한 차례 귀국하여 도산 안창호의 묘소를 참배하고 돌아갔으며, 1942년경 상해에서 별세하여 상해 만국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 배형식(裴亨湜, 1874~1955) 목사는 평안남도 출신이다. 1917년에 협성신학교를 졸업한 뒤, 1918년 미감리교연회(美監理敎年會)가 시베리아 선교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지역선교 책임자로 파송되었다.
- 만주의 장춘(長春)을 중심으로 간도(間島) 전역을 순회시찰하면서 선교전략을 세우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김영학·유찬희·박경철 등과 함께 간도지방의 한족독립기성회 의사부원(議事部員)으로 활동하였다.
- 1919년에는 간도를 대표하여 파리 파견 대표자에게 통신할 임무를 맡은 연락책임자로도 일하였다. 1920년에는 강서지방(江西地方)에서 목회하다가 이듬해 만주 선교사로 파송되어 동료인 정재덕(鄭在德)·최수영(崔壽永)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위시하여 시베리아일대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다.
- 그 뒤 만주의 하얼빈·용정 지역에서 선교를 겸한 교포교회사업과 민족의식 고취에 헌신하였다. 1931년 조선감리교회 만주지방선교회의 조직에 참여하였고, 초대만주지방 감리사를 역임하였다. 1939년 20여년에 걸친 만주 선교 사업에서 은퇴하여 귀국, 1950년 뒤에는 서울 수색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 이원익(李元益, 1884~1963) 목사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1919년 평안북도 의주의 고령교회(古寧敎會) 목사로 재직하던 중 3·1운동을 주도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외 1인인 유여대(劉如大)를 비롯한 김병조(金秉祚)·김승만(金承萬)·장덕로(張德魯) 등과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해 4월에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제2회 임시의정원 평안도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임시정부내에 설치된 임시사료편찬회(臨時史料編纂會)에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이해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대표 여운형(呂運亨)이 파리에 파견될 때, 목사 안승원(安承源)을 비롯한 장로 김시혁(金時赫) 등 11인과 함께 연서(連署)한 ‘한국시정진술서(韓國時情陳述書)’를 국제연맹 장로교만국연합총회 및 미주 각 교회에 보내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그 밖에 국민대표회기성위원회(國民代表會期成委員會)집행위원과 임시의정원 외교위원회위원 등을 맡았다. 같은 해 대한적십자회에 가입하여 자유대(自由隊) 대원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임시정부 서무국장을 지내고 한중국민호조사(韓中國民互助社)에서도 활동하였다.
- 1921년 조직된 대한야소교진정회(大韓耶蘇敎陳情會)의 서기가 되었으며, 1924년 임시정부 인사국장, 1925년 비준국장에 임명되어 활동하였으며, 독립운동 자금조달차 입국하였다가 일본경찰에 잡혔다.
- 조보근(趙普根) 장로는 목사 손정도(孫貞道)·이원익(李元益)·김병조(金秉祚)·김인전(金仁全) 등이 함께 조직한 대한야소교진정회(大韓耶蘇敎陳情會)의 서기로 활동하였다. 국내외 각 교회에 한국의 실정과 독립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발송하기

도 하였다.

- 김시혁(金時赫) 장로는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 대표 여운형(呂運亨)이 파리에 파견될 때, 목사 안승원(安承源) 등을 비롯한 기독교계 대표들과 함께 ‘한국시정진술서(韓國時情陳述書)’에 연서(連署)하였다. 이 문서는 국제연맹 장로교만국연합총회 및 미주 각 교회에 보내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 김승만(金丞萬, 1889~1938) 장로는 평북 의주 출신이다. 의주교회 장로로 봉직 중 3·1운동이 일어나 임시정부와 국내의 연락책을 수행했다.
- 장봉(張鵬, 1877~?) 장로는 서울 출신이다. 그는 일찍이 구국운동에 뜻을 두어 1898년 독립협회 총대위원 및 대표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개화시대 독립협회를 발판으로 큰 활약을 한, 새문안이 낳은 인물 중 한 분으로, 새문안교회 장로이며 독립 운동가였다. 만민공동회에서의 활동은 크게 두드러졌고,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새문안교회에 출석하여 교회를 통한 애국운동에 큰 열의를 지냈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은 1919년 5월 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의(에)게’란 제목의 한글 편지를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 본 문서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저항 의식을 담은 역사적 자료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영향력을 주었던 문서이다. 실제로 1919년 9월 9일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운홍에 의해 당시 백악관과 국무장관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은 한국사에서 3.1운동 당시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저항 의식을 담은 역사적 자료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영향력을 기쳤던 문서라는 사실, 근대기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였던 Avison. Oliver R 박사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 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4) 기타

- 문서의 명칭은 문서의 주체와 내용을 고려하여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 호소문>과 같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5) 문헌자료

- 『한국감리교회사(韓國監理教會史)』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교육국, 1975)
- 『기독교조선감리회요람(基督教朝鮮監理會要覽)』 (양주삼 편, 기감총리원, 1931·1935)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大韓民國獨立有功人物錄)』 (국가보훈처, 1997)
-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 5(국가보훈처, 1988)
-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大韓民國臨時政府議政院文書)』 (국회도서관, 1974)
-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 2(국사편찬위원회, 1974)
- 『무장독립운동비사(武裝獨立運動秘史)』 (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경상북도경찰국, 1934)
- 『독립운동사략(獨立運動史略)』 (김병조, 1920)

## 6) 종합의견

-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가 3.1운동 피해상을 만국예수교우에게 알리는 호소문>은 1919년 5월1일 손정도 목사 등 한국 기독교계 대표 11명이 ‘만국 예수 교우의 (에)게’란 제목의 한글 편지를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역한 호소문이다.
- 본 문서는 3.1운동 당시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저항 의식을 담은 역사적 자료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영향력을 주었던 문서이다. 실제로 1919년 9월 9일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운홍에 의해 당시 백악관과 국무장관에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 교수>

### 1) 내용 및 특징

- 이 호소문은 1919년 3·1운동 직후부터 상하이에 망명한 기독교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일제의 만행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한 문건이다. 국문으로 작성하고 그 번역문이 함께 만들어졌으며, 안승원 등 7명의 목사와 조선근 등 4명의 장로가 대한국야소교회대표자 명의로 1919년 5월 국내외 기독교 관계자들에게 발송되었다.
- 이 호소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의 기관지로 간행되던 『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자에 국문 부분이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 2) 문헌자료

- 『신한민보』 1919년 10월 2일자

### 3) 기타

- <대한국기독교대표자 호소문>은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인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문건이다. 국문과 영문번역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국내와 미국에 발송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이 이 문건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으로 국내에 있던 에비슨 박사에게 보내진 것을 증손녀가 기증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하이에서 국내로 보내진 것이 틀림없다. 이외에 미국국무부 한국관계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동일 문건은 미국에 보내진 호소문을 수취자들이 대통령이나 국무성에 보낸 경우이다.
- <대한국기독교대표자 호소문>은 그 자료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미국 내 기독교 관련기관이나 선교부 등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1919년 전후 작성된 다른 독립운동 관련 문건 등과 비교한 다음에, 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한국기독교대표자 호소문>은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상하이에 모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발송한 문서이다. 특히 이 문건은 에비슨 박사의 소장이었던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현재 이 문서가 미국 국내 기독교 관련기관이나 개인의 소장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고, 1919년

전후 국내외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적지 않은데 그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비교 검토를 거친 다음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우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4) 종합의견

- 보류

## 10.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재질	판종/형식	소유자	소재지	비고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1점	세로170×가로34.4cm	19세기 말	종이 (중국제품)	필사/족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

- ○○○ 위원
  -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환수(기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위원
  - 필치는 물론 종이나 장황의 격도로 보아서 당시의 시대성이 드러나며

안작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에비슨의 계보인 앤더슨(A.G, Anelerson)의 후손이 기증하였다는 소종래(所從來)가 확실한 고종의 하사품이라는 근거가 믿을 만 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 위원
  -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과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중원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남겨진 족자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와 친분이 있는 A. G. Anderson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근대문화재과 의견>

- 시대성과 역사성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위원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 ○○○ 위원 : 고종황제 하사 족자
  - ○○○ 위원 : Dr. Avison, Oliver. R. 家 所藏 ‘投良劑堯帝時巫咸’ 해서체 족자
- 근대문화재과 : 고종황제 하사 족자

#### 바. 의결사항 : 보류

- 연원 등 보완 조사 필요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조사보고서 1부.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위원>

### 1) 현상

- 배접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보수가 요망됨.

### 2) 내용 및 특징

- 조선(대한제국)정부가 19세기 말기에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이다. 에비슨은 1893년 8월말에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주치의가 되었고, 이후 10년간 왕실의 주치의로 활동한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인이다.
- 이 족자가 하사된 시기에 대해서는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도 참고가 된다. 곧 여러 문헌에 보이는 에비슨의 한자명은 宜丕信(의비신), 魚飛信(어비신), 魚丕信(어비신) 등이다. 이 중에서 宜丕信(의비신)은 이 족자 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입국 초기의 한자명으로 추정된다. 이후 1906년에 에비슨은 훈4등과 태극장을 하사받게 되는데 이때의 한자명은 魚飛信(어비신)이다. 곧 『고종황제실록』의 고종 43년(1906) 4월 28일(『일성록』에도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이 있음)조에 “(언더우드와 함께) 영국 의사 어비신은 여러 번 수술을 한 성과가 있으니 특별히 모두 훈4등을 주고 각각 태극장을 하사하라.(英國醫師(영국의사), 魚飛信(어비신), 屢有試術之效(루유시술지효), 並特敍勳四等(병특서훈사등), 各賜太極章(각사태극장))”는 기사<sup>4)</sup>가 있는데 이 한자명은 이때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모든 기록에 魚丕信(어비신)이라는 한자명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족자는 에비슨이 왕실의 주치의로 재임하던 시기와 한자명 표기 등을 보아 1893년 입국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에 그에게 하사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오른쪽에 “宜丕信 大人 閣下(의비신 대인 각하)”라는 수급자 표시에 이어 족자 가운데 쓴 글(詞語(사어))은 “投良濟堯帝時巫咸(투양제요제시무함)”이다. 풀이하자면 “좋은 약을 지어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이다. 무함이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이며, 황제는 이 사람을 공경하여 신무(神巫)라하고 재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수급자의 오른쪽과 가운데 쓴 글의 위쪽에 각각 “의비신 대인 각하” “투양제요제시무함”과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병기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족자의 아래 부분에도 가운데 쓴 글에 대해 작은 글자로 한글 풀이를 적어 놓았다. 곧 “도흔 약을」 가지고 잘 쓰는」 법은」 팔천삼십팔십」 여년전

4) 의정부관보 제3447호. 1. 宮廷錄事, “詔曰…英國醫師, 魚飛信, 屢有試術之效, 并特敍勳四等, 各賜太極章.” 2. 敍任及辭令, “英國醫師, 魚飛信, 敍勳四等, 賜太極章. 四月二十八日.”

에」 요라는 황데째에」 텃하에 데일」 되는 무함이라」 는 의원과 궂도다”라는 이 글의 국역문이 9행에 걸쳐 작은 글씨로 필사되어 있는 것이다. 국역문은 아마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을 배려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10행에는 가운데는 태극문양, 외부에는 괘와 글씨가 있는 작은 인장이 찍혀져 있다.

- 뒷면 상단에는 펜으로 앞면의 내용을 영어로 써 놓았다. “Korean Inscription in commendation of the Doctor」 (박사에게 상으로 주고자 쓴 한글)”라는 제목 다음 행에 “As for his skill in the use of medicine」 it is equal to that of Mooham who」 was the first in all the universe」 in the days of the The Emperor Yo, 8480 add years ago.”라고 펜으로 필사해 놓았다. 영문내용은 가운데 쓴 8자의 해석이자 국역문의 영역이다. 국역문과 다른 점은 “팔천삼십팔십 (8380)”을 “8480”으로 적어 놓은 점이다. 이 글의 왼쪽에 “□□□from [Oliver] Avison”이라는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비슨이 누군가에게 주거나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 종이는 8자를 쓸 수 있게끔 미리 8개의 동그란 문양이 있는 연황색의 중국제품이며, 네 테두리도 이와 유사한 문양이 있다. 글씨는 송연묵으로 썼으며, 윤기가 남아 있다. 축의 재료는 참죽나무로 추정된다. 소장자 측에서는 고종의 친필로 전해진다고 하나 이 작품에는 고종이 직접 썼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굵은 방형의 서체, 「珠淵(주연)」이라는 고종의 호가 적힌 일반적인 친필과 대비해 볼 때 친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더욱이 이 족자는 재료가 전통 한지가 아닌 점도 아쉽다.
- 그러나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 의료인을 중국 상고시대 황제 때의 무함에 비유함으로써 서양 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겠다. 또 이 족자는 에비슨의 손녀인 헬렌 에비슨 여사가 소장해 오다 1996년 10월 17일 연세의료원 안이비인후과병원 봉헌식에서 Paul H. Anderson박사를 통해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Paul H. Anderson박사는 안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최초의 외국인 의사로 1931년에 세브란스병원 안과에 부임하였던 Earl. W. Anderson(재임1931~1941) 교수의 아들이다.
- 이렇게 이 족자는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환수(수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3) 문헌자료

- 심규한·박윤재, 『제중원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015)
- 이만열, “제중원과 에비슨”(『제중원 개원 1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2015. 4. 10)
- 연세대학교 의료원 안이비인후과병원([http://www.yuhs.or.kr/affiliated\\_org/hospital/severance/eye\\_ent/](http://www.yuhs.or.kr/affiliated_org/hospital/severance/eye_ent/))
- 『고종황제실록』
- 『일성록』

### 4) 종합의견

-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인데다 해외에 반출되었다가

환수(기증)된 문화재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위원>

#### 1) 현상

-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특수 문양지에 세로로 쓴 글씨를 표구한 족자.
- 보관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단, 종이와 배접지와 물성이 걸맞지 않음으로써 지면에 가로로 갈라짐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 있다. 장황상태에서 옛 모습은 접할 수 있으나 뒷부분에 영어로 번역문을 쓴 펜글씨의 흔적이 있고 특히 밑부분에 훼손이 심하여 보존수리가 요구된다.

#### 2) 내용 및 특징

- 이 족자는 고종황제가 에비슨이란 당시 시의(侍醫)에게 하사한 글씨로 전해져 온 것이다. 그 동안 소장자들이 고종의 친필로 여겨온 바 있으나 믿을 수 없다. 우선, 필치에서 고종의 글씨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문인 “投良劑堯帝時巫咸(투량제요제시무함)” 여덟 글자의 윗부분과 오른쪽 상단에 쓴 협서 “宜丕信 大人 閣下(의비신 대인 각하)” 일곱자의 오른쪽에 우리글로 독음을 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황제글씨의 품위에 전혀 걸맞지 않다고 하겠다. 또, 서명과 낙관이 없는 것에 있어서 고종이 남긴 여럿 육필을 근거로 볼 때 주연(珠淵)이란 첩명(簽名)외에 낙인(落印)하고 있는 대체적인 여타 글씨들과 전혀 다른 체제를 보이고 있다.
- 이 밖에도 밑 부분에 한글로 본문에 대한 번역을 “묘은 약을 가지고 잘 쓰는 법은 팔천 삼백 팔십여년전에 요라는 황데때에 텃하에 데일되는 무함이라는 의원과 갓도다.” 라고 쓰고 먹으로 원형의 도장을 찍었다가 지운 흔적이 보인다. 이 필치는 위의 독음을 단 필치와 같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추론컨대 거의 비슷한 시기 한국최초의 중등사학<培材學堂>현판을 정학교에게 쓰게 하여 하사하였던 예와 같이 누구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와 동일한 방법을 택하였던 사례로 판단된다. 필치는 물론 종이나 장황의 격도로 보아서 당시의 시대성이 드러나며 안락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또한 에비슨의 계보인 앤더슨(A.G, Anelerson)의 후손이 기증하였다는 소종래(所從來)가 확실한 고종의 하사품이라는 근거가 믿을 만 하므로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 3)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충분하다.

### <○○○ 위원>

#### 1) 현황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 로 알려진 이 문서는 가로 344mm 세로 1700mm 의 족자이다. 본래 Oliver R Avison 박사의 4남인 Douglas Bray의 딸인 Helen Dell 여사에 의해 소장되었으나, 지난 1996년 10월 17일 연세의료원 안이비인후과 병원 봉헌식에서 일제강점기 안이비인후과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하였던 Earl H. Anderson 박사의 아들인 Paul H. Anderson 박사가 연세대에 기증하였다.

- 족자는 상축과 하축이 남아 있으며, 상축에 끈은 있으나 꽃이는 멸실된 상태이다. 제침은 없으며 그 자리에 본문인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번역한 영문을 펜으로 기록하였다.
-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하고, 구겨짐과 들뜸 현상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오염물의 클리닝과 물성분석을 통한 배접 등 기본적인 보존 처리가 요구된다.

## 2) 내용 및 특징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문양지에 해서체로 쓴 글씨이다. 화본(畫本)의 중앙에는 세로 방향으로 원문(圓紋) 8개를 배치하고, 각 원문 안에 문양을 그려 넣은 후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이라는 한자(漢字) 여덟자를 각각 적어 넣었다. 또한 각 한자 위에는 그 독음(讀音)을 한글로 써넣었다. 또한 상하좌우 사방의 가장자리에는 얇은 먹을 사용하여 쌍변으로 문양대(紋樣帶)를 그려 넣은 후 그 안쪽에 문양을 배치하였다. 문양은 간결하여 운문과 당초문 등을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 화본 중앙의 여덟자를 기준으로 왼쪽(향우)에는 본문보다 작은 글자로 ‘의비신 대신 합하(宜丕信大人閣下)’라 하여 족자를 받는 사람을 밝히고 있다. 역시 각 글자의 왼편에 한글로 한자의 독음을 달아 놓았다. 이를 통하여 족자를 받은 인물이 Oliver R Avison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Oliver R Avison(1860~1956)은 고종의 시의(侍醫)로서 제중원 원장과 세브란스 원장을 비롯하여 제중원의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한국 이름은 ‘의비신(宜丕信)’ 혹은 ‘어비신(魚丕信)’이라 부르고 있다.
- 그는 1860년 6월 30일 영국 Yorkshire의 Jagger Green에서 태어났다. 1877년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본래 관심있었던 화학분야를 살리기 위해 1880년 스미스폴스의 약국 점원으로 3년여 일하면서 1884년 6월 온타리오 약학교를 졸업하여 약사가 되었고, 이후 토론토대학교 의과대학에 편입하여 1887년 6월 졸업하면서 의사가 되었다. 에비슨은 졸업 직후 교수로 임명되어 약리학과 치료학을 강의하면서 동시에 토론토 시내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 Oliver R Avison은 1893년 2월 6일 선교사로 임명되어 7월 우리나라에 왔고, 11월 1일 제중원(濟衆院)의 책임을 맡았다. 제중원은 1885년 4월 10일 고종의 후원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병원 설립은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던 Horace N. Allen이 갑신정변 당시 자상(刺傷)을 입었던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제중원의 운영은 조선 정부가 건물, 운영비, 병원 업무 보조 등의 모든 일을 책임맡고, 미국 북장로회가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일부 운영을 책임지는 합작 병원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알렌(Horace N. Allen) 이후 헤론(John W. Heron), 엘러스(Annie J. Ellers) 그리고 빈튼(Charles C. Vinton) 등의 의료선교사들이 의료 활동을 펼치면서 서양 의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Oliver R Avison이 제중원을 책임지면서 이룬 업적은 몇 가지가 있다.
- 첫째는, 제중원의 선교부 이관이다. 조선 정부와 북장로회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제중원은 당시 재정 압박과 운영 부실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었다. 이에 에비슨은 조선 정부에 제중원을 선교회에 넘기도록 요청하였고, 반년 여의 협상 끝에 1894년 9월 26일 제중원의 운영권이 미국 선교부에 넘어갔다.
- 둘째는, 제중원에서 의학 교육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본래 제중원은 1886

년 3월 29일 16명의 학생으로 제중원의학교를 시작하였으나 계속되지 못했다. 이에 에비슨은 1895년 10월 제중원에서 의학 교육을 재개하였다. 동시에 거의 전과목의 의학책을 우리말로 번역 출판하였다.

- 셋째는,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이다. 에비슨은 1900년 4월 30일 뉴욕에서 개최된 해외 선교회의에서 ‘의료 선교에 있어서의 우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며 여러 선교부가 연합해 운영하는 현대식 병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강연을 들은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로부터 1만달러를 기증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에비슨은 1902년 6월 남대문밖 북숭아골의 땅 9에이커를 구입하여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정초식(定礎式)을 열었고, 1904년 9월 23일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개원하였다.
- 한편 족자의 하단에는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국역한 내용을 적어 넣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흔 약을」 가지고 잘쓰난」 법은」

팔천삼백팔십」 여년전에」 요라는 황때때에」

턴하에 데일」 되는 무함이라」 는 의원과 갓도다

-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태극(太極)’과 ‘건곤감리(乾坤坎離)’의 四卦가 함께 그려진 태극인(太極印)을 찍었다.
- 한편 표지(表紙)에는 제침이 없다 다만, 그 자리에 본문인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번역한 영문을 펜으로 기록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s for his skill in the rise of Medicine it is equal to that of Mooham who was the first in all The Universe in the days of the The Emperor Yo, 8480 old years ago."*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고종의 친필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족자에서 글쓴이의 署名과 落款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고종이 남긴 다른 친필본에서 확인되는 ‘珠淵’이라는 簽名과 落款 등의 형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조금더 고증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그러나 본 족자는 한국의 초기 의료와 고등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Oliver R Avison 박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라는 사실과 함께 본문을 한자로 쓴 다음 그 독음을 한글로 적어 넣고 그 하단에는 그 뜻을 국역하여 기록하였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의 후손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도 큰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은 조금더 고증이 필요한만큼 등록문화재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고종의 시의(侍醫)로서 제중원 원장과 세브란스 원장을 비롯하여 제중원의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Avison. Oliver R 박사가 고종으로부터 받은 족자라 전한다. 고종의 친필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 다만,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과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중원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남겨진 족자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와 친분이 있는 A. G. Anderson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은 조금더 고증이 필요한만큼 등록문화재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4) 기타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향후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유물이다. 따라서 ‘고종’과 ‘하사’ 라는 용어는 사용하기 어렵다.
- 다만 에비슨가에 소장되었던 사실은 분명한만큼 수증자인 Avison. Oliver R 박사 그리고 족자의 내용인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劑堯帝時巫咸)’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근거할 때, 〈Dr. Avison. Oliver. R. 家 所藏 ‘投良劑堯帝時巫咸’ 해서체 족자〉 정도의 명칭도 한 사례가 될 것이다.

### 5) 종합의견

-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고종의 시의(侍醫)로서 제중원 원장과 세브란스 원장을 비롯하여 제중원의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등을 역임한 Avison. Oliver R 박사가 고종으로부터 받은 족자라 전한다. 고종의 친필본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 다만, 고종의 시의(侍醫)를 지냈던 사실과 한국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중원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남겨진 족자의 형식과 내용이 다른 유물과 비교하여 특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가치가 있다. 더욱 Avison. Oliver R 박사와 친분이 있는 A. G. Anderson의 후손들에 의해 기증된 환수문화재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 따라서 〈고종이 에비슨에게 하사한 족자〉는 한국사에서 대한제국기의 제중원 관련 역사를 조명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고종의 친필이라는 사실과 하사 여부에 대한 사실은 조금더 고증이 필요한 만큼 등록문화재의 명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11.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1점	길이 53.8cm, 칼날 30cm	19세 기 말	상아, 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 세로 50-1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4.24.)>

- ○ ○ ○ 위원
  - 알렌의 후손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 준 알렌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 칼이라고 함
  - 이 칼은 갑신정변 당시 자상을 입은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준 알렌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 호신용 칼로서 근대 등록문화재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위원

- 조선말의 유명 정치가이자 권력자, 개혁가, 문인화가였던 민영익이 가지고 있던 유물로 갑신정변 때의 알렌의 의료행위에 따른 선물이어서 역사적, 의료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함

○ ○ ○ ○ 교수

- 이 검은 알렌의 후손 리디아 알렌이 2010년 4월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알렌의 후손이 소장하기까지의 소장경위가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아, 등록문화재로 가치를 논의하기 어려움

**<근대문화재과 의견>**

- 현지 조사자 중 “알렌의 후손이 소장하기까지의 소장 경위가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경위가 밝혀진 후, 등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 ○ 교수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칼
- ○ ○ ○ 위원 : 연세대 소장 근대 의료 관련 유물-상아도(象牙刀)
- ○ ○ ○ 교수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 근대문화재과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칼

**바. 의결사항 : 부결**

-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고 일본식 칼임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조사보고서 1부.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조사보고서

1. 명 칭 :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교수>

### 1) 현황

- 갑신정변 당시 자상을 입은 민영익이 치료를 해준 알렌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 칼로서 알렌의 후손이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에 기증하여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음

### 2) 현상

- 호신용 칼로서 刀身(칼날)과 護刃(호인), 칼집 내부 보강재를 제외한 칼의 재질이 모두 상아로 이루어져 있음
- 손잡이와 칼집을 포함한 외형이 용의 형상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칼집은 나무를 이용한 내구재 위에 상아로 마감하는 단일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띠돈 없이 패용장식에 달린 고리에 직접 띠를 얹어 차는 방식으로 조성
- 칼날은 재질이 철이고, 육각도의 형식이며, 일본도의 킷사키(切先-小丸)와 하몬(刃文)이 형성되어 있고, 칼날 스페에 동으로 만든 護刃(칼날을 휩싸서 댄 덧쇠)이 조성되어 있음

### 3) 내용 및 특징

- 이 칼은 일본 19세기(幕末~明治時代)에 제작된 호신도로서 茶室刀(다실도) 내지는 短刀(단도)와 유사한 형태의 칼
- 이러한 형태의 칼은 현재 많이 전해오지는 않지만 상아로 제작된 유사한 형태의 칼들이 현존하고 있음.
- 이들 칼들의 특징은 일본의 역사 인물 및 풍경, 이야기, 동물 등을 소재로 하였고, 칼의 외형을 상아에 제작한 뒤 그 내용을 세밀하게 표현하였음
- 현존하는 칼에서 용의 몸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칼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조형 수법을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형태와 조각 수법이 매우 유사함.
- 특히 검정색 점을 이용하여 사람 및 동물 눈동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흡사함(#참고자료 참조)
- 단, 이들 단도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茶室刀(다실도)로서 칼날이 나무로 되어 있으나 알렌의 칼은 일본 단도의 칼날로 되어 있음
- 칼집에 조성된 패용장식은 일본의 타찌 패용장식과 유사하며, 이러한 장식은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의 송·원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된 방식이나 조선의 경우에는 이를 다양하고 과학적인 형태의 띠돈고리 패용방식으로 발전시켜 활용하였음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 1·2항에 의하면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칼

은 갑신정변과 관련된 인물(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 준 알렌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 칼이기에 문화재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친정 조카로서 개화기 개화 업무를 이끌었고 후에는 고급 관료로서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의 공격을 받아 복부에 자상을 입었으나 알렌의 수술로 살아났음.
- 알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에서 명성황후의 손목 수술과 조카 민영익의 복부 수술을 시행한 인물로 외과수술의 효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칼은 비록 조선의 칼이 아니고 갑신정변에 직접 사용된 칼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과 인물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문화재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식의 단도는 그리 흔하지 않기에 19세기 일본도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5) 기타

- 이 칼은 1884년(고종 21년) 한국 최초 의료 선교사로 내한하여 미국 공사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고종 황제의 처남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하였던 알렌 [Horace Newton Allen]이 소장하고 있던 칼임
- 알렌의 후손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 준 알렌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 칼이라고 함
- 따라서 이 칼은 갑신정변시 민영익에게 자상을 입힌 칼은 아니고, 민영익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호신용 칼로 보여짐.
- 갑신정변과 민영익을 비롯하여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廣惠院)과 연관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칼로서 우리나라 근대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칼이라 판단됨

#### 6) 문헌자료

- 梅田洪喆, 《일본도의 역사와 감정》, 영신애드, 2006
- 稻田和彦, 《도설 일본도대전》, 學研, 2006

#### 7) 보존 및 활용작업 방안

- 이 칼은 일본도의 단도류에 해당하는 칼로서 일본도의 구조 특성상 분해·결합이 가능함. 특히 일본도의 경우에는 습배 부분에 제작자에 대한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해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이 칼은 갑신정변에 직접 사용된 칼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과 인물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문화재로서 역사적·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하기에 관련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한다면 더욱 가치가 돋보일 것임

#### 8) 종합의견

- 이 칼은 갑신정변 당시 자상을 입은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준 알렌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 호신용 칼로서 근대 등록문화재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1. 日本美術時代 本象牙細密鶴松七福神彫 刻短刀拵(일본미술시대 본상아세밀학송칠복신조 각단도존)



(출처 : <http://page12.auctions.yahoo.co.jp/jp/auction/p476317659#enlargeimg>)

2. 歴史物語図象牙短刀拵(역사물어도상아단도존)



(출처 : <http://page6.auctions.yahoo.co.jp/jp/auction/f146505678#>)

### 3. 일본단도, 알렌 칼 비교

#### <알렌 칼>



#### <일본 단도>



## <○○○ 위원>

### 1) 내용 및 특징

- 동은의학박물관에 소장된 상아도는 갑신정변 때 刺傷(자상)을 입은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준 알렌(Allen, H. N.)에게 준 칼로 후손인 리디아 알렌(Lydia Allen)이 2010년 4월9일에 기증한 것이다.(도1) 민영익(1860~1914)은 조선말의 정치가로 본관은 驪興(려흥), 자는 遇鴻(우홍), 子相(자상), 호는 芸楣(운미), 園丁(원정), 千尋竹齋(천심죽재) 등이며 목죽도로 유명한 문인화가이다. 그는 1875년에 명성황후의 오빠인 閔升鎬(민승호) 부자의 爆死(폭사)후, 양자로 입양되어, 조정의 실세가 되었다. 1877년에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1881년에 經理統理機務衙門軍務司堂上(경리통리기무아문군무사당상), 別技軍 教鍊所堂上(별기군 교련소당상)으로 1882년 7월 壬午軍亂(임오군란) 이전까지 윤웅렬 등과 별기군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였다. 임오군란 후 박영효를 정사로 하는 사절단이 일본에 파견될 때, 김옥균 등과 함께 비공식 사절로 3개월간 일본의 개화과정을 시찰하였다. 1884년 12월, 김옥균 등이 주도한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에서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전신에 자상을 입었으나 홍영식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알렌의 치료를 받고 회복, 3개월 만에 친군영에 복직되었다.
- 엘렌이 받은 상아도는 전체 길이 53.8cm, 도신 30cm 크기의 短刀(단도)로서 칼집과 刀柄(도병)은 상아로, 도신은 철로 만든 것이다. 표면에는 구름 속에서 노니는 4爪龍(조룡) 3마리가 조각되었으며, 칼집의 중간에 2개의 고리가 있어 매듭끈으로 몸에 차는 모양이다. 용이 휘감은 문양이어서 일견, 중국 칼 같아 보이나 이런 유형은 중국의 刀劍(도검) 유형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오직 조선 『세종실록』, 「오례의」 중 〈軍禮序禮(군례서례)〉에 보이는 검과 유사할 뿐(도2) 보검, 운검, 환도와도 다른 모양이다.(도3, 4) 특히 재질이 동남아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아이므로 조선 검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에도(江戶)시대부터 茶室(다실)에서의 패용이 허용된 茶刀(다도)로 보여진다. 즉 일본 에도~메이지 시기의 무사들은 신변에 長刀(장도)와 단도를 함께 지녔으며 다실에서는 단도만 허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상아제 단도가 여러 점 남아있는데, 대개의 茶室刀(다실도)는 표면이나 코등이의 장식 위주이고, 칼날은 대개 목검이 많을 뿐더러 2개의 패용 고리도 일본 다실 단도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아도는 민영익이 임오군란 후 일본에 갔을 때 입수하여 護身用(호신용)으로 쓰기 위해 칼날을 끼운 것이거나 혹은 「국조오례의」의 見樣(견양)대로 주문제작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 칼은 끝이 살짝 흰 모양인데, 화로에 넣고 가열과 메질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긴 것이며 날은 날카롭지만 산화되어 光(광)이 죽어 철 본색을 띄고 있다. 칼날을 병부에 끼워 보호하고 있는 護刀(호인)은 금동이었으나 금이 박락되고 素地(소지)인 동색이 드러난다. 코등이는 표면에 양각 雲文(운문)을 조각하였다.(도5)
- 표면의 문양과 조각수법을 보면 柄部(병부)는 龍頭(용두) 모양인데, 얼굴표현과 수염, 갈퀴 등이 섬세하게 조각되었으며 눈은 검은색 돌인 黑曜石(흑요석)(Onyx)으로 상감했다.(도6) 눈동자를 흑요석으로 상감하는 수법은 6세기 북위 맥적산석굴 불상에서도 보이는 전통적인 수법이다. 칼집의 표면은 2개의 문

양대를 따로 끼워서 공간을 3분하여 구름 속에 노니는 용 2마리를 사실적으로 조각하였고, 중간대에 2개의 타원형 고리를 따로 제작해 고정시킨 것이다.(도7) 칼집 끝 부분은 龍身(용신)이 말린 모양이나 龍鱗(용린)표현이 사실적이다.(도8) 이 상아도는 전체적으로 3마리의 용이 조각되었으며, 표면의 사실적인 조각풍과 수법은 일본 상아다도와 같아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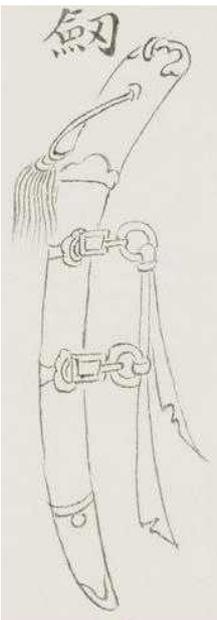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알렌이 민영익으로부터 받은 상아도는 100여년 이상 후손이 보존해 온 것으로 출처가 분명할 뿐 아니라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또한 조선말의 유명 정치가이자 권력자, 개혁가, 문인화가였던 민영익이 가지고 있던 유물로 갑신정변 때의 알렌의 의료행위에 따른 선물이어서 역사적, 의료사적 가치가 있다.
- 전체적인 형태는 『국조오례의』에 제정된 검의 견양과 유사하고, 조각수법이나 외양의 성격은 일본 에도~메이지시기의 다실도와 같으며, 일본에도 수입재였을 상아를 세공한 기술도 뛰어나 공예적 가치도 있다.
- 따라서 이 상아도는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도판]



도23. 민영익이 알렌에게 준 상아도, 19세기 말,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도 24. 『세종실록』, 「五禮儀」, 軍禮序禮의 검

도25.進宴儀軌중 雲劍(1902, 규14494)

도26. 進宴儀軌 중 환도(1901, 규14464)



도27. 알렌 상아도의 도신과 칼집(前面), 護刃은 금동



도28. 알렌 상아도의 용두형 손잡이(용1, 눈: 흑요석 상감)



도29. 꼬리 부분 조각(용2)



도30. 칼집 끝 부분(용3)

#### 4) 종합의견

- 조선말의 유명 정치가이자 권력자, 개혁가, 문인화가였던 민영익이 가지고 있던 유물로 갑신정변 때의 알렌의 의료행위에 따른 선물이어서 역사적, 의료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

### <○○○ 교수>

#### 1) 내용 및 특징

- 이 칼은 갑신정변 당시 자상을 입은 민영익이 자신을 치료해 준 알렌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 검으로 알렌가에 전해 오는 것으로, 알렌의 후손이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칼집과 손잡이가 상아로 된 이 검은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알렌의 후손이 소장하기까지의 그 소장 경로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 2) 기타

- 이 검은 알렌의 후손 리디아 알렌이 2010년 4월 연세대학교에 기증한 것으로, 그 소장경위가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아, 등록문화재로 가치를 논의하기 어렵다.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검의 제작과 소장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민영익이 알렌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것이 후손의 전문으로만 알려져 있다. 즉 명확한 자료로 확인될 수 없으며, 칼 자체도 문화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등록문화재로 가치를 논의하기 어렵다.

#### 4) 종합의견

- 보류

## 12.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 문화재 등록

### 가. 제안사항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5.1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 (2) 대상문화재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 년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비고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 등 훈장	3점 [훈공일등 태극장(정장), 훈공이등 태극장(부장), 대수]	훈공일등 태극장 :120x75mm 훈공이등 태극장(일등 태극부장) :90x90mm 대수 :106x1590mm	1904년	태극장 : 금속 대수:직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 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3) 검토사항 : 문화재 등록 검토

###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5.05.11.)>

- ○○○ 교수
  - 훈장의 수증자인 알렌은 1884년 대한하여 의사로,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은 우리 근대사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 ○○○ 위원
  -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알렌 수증품으로서, 문헌기록과 훈증서를 통해서 수여 사실이 확인되는 중요한 근대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교수
  - 알렌의 역사적 위상과 대한제국기 유존 훈장의 희소성, 유물의 보존상태 등을 종합하여 근대문화재 등록가치가 있음.

**<근대문화재과 의견>**

-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료로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문화재 명칭 검토**

- 관계전문가
  - ○○○ 교수 :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勳功一等 太極大綬章)
  - ○○○ 위원 : 알렌 수증 훈공 일등 태극장
  - ○○○ 교수 : 알렌 수증 태극 훈공일등 훈장
- 근대문화재과 :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勳功一等 太極大綬章)

**바.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문화재 명칭은 추후 재검토하여 정함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 조사보고서 1부.

#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 조사보고서

1. 명 칭 :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 훈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4. 조사자 의견

## <○○○ 교수>

### 1) 현상

- 훈공일등 태극장과 훈공이등 태극장, 대수가 미국 Smithsonian Institute 소장품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에 들어 있다.(그림 1) 이것은 본래의 훈장 함이 아니므로 원래의 현상대로 잘 보관되어 온 것은 아니다.(그림 2)



그림 1 훈공일등 태극장과 대수에 부착된 상태의 훈공이등 태극장 현황



그림 2 훈장이 보관된 상자. 본래의 훈장함이 아니다.



그림 3 훈장 펼친 상태. 훈공이등 태극장은 패침을 뺄 수 없어서 그대로 놓아둠.

- 훈공일등 태극장은 앞면에는 문채, 고리, 꼭지가 다 온전하나, 뒤쪽 면에는 가운데 법랑으로 만든 홍청 태극 부분이 유실된 상태이다. 은질의 빛깔은 다소 바래 있다.



그림 4 훈공일등태극장 대수 부착 모습



그림 5 훈공일등 태극장 뒷면 청홍 태극 유실 상태

- 훈공이등 태극장은 앞면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나 뒷면의 패침 부분이 일부 탈각되고 일부 변형되었다. 가슴에 패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패침은 가운데가 길고 양쪽에 짧은 패침이 있어 가슴에 위에서 아래로 꼳듯이 천에 고정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그림 10 참조) 그러나 이 훈공이등 태극장은 가운데 패침이 없어진 상태이며, 보관함이 없어진 상태에서 유실되지 않도록 대수에 부착하느라고 패침의 방향을 위에서 아래쪽이 아닌 옆에서 가운데 쪽으로 향하도록 꺾어서, 대수에 부착된 뒷면을 보면 서로 겹쳐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훈장이 고정될 수 있도록 무리하게 꺾어 놓은 것이다. 보존처리할 때에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훈공이등 태극장 부착 상태. 가운데 패침이 유실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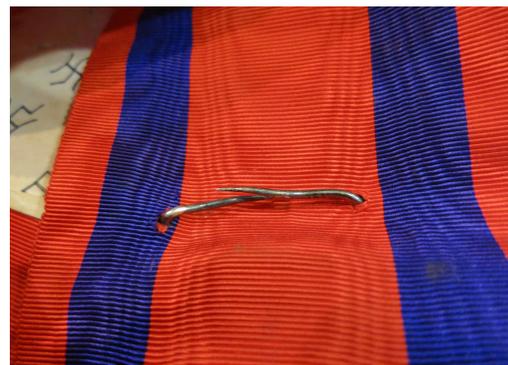


그림 7 양쪽 패침을 꺾어서 가운데로 모아 대수에 억지로 부착했으나 이는 원래 착용방식이 아니다.

- 대수는 청홍으로 직조되어 있으며, 유실된 부분이 거의 없이 잘 남아 있다. 그러나 대수가 교차하는 부분에 달린 꽃의 뒷부분에 테잎으로 고정한 것이 있다. 아마도 예전에 일부 바느질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완하기 위해 비닐 테이프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림 8 대수 꽃의 뒷면 부분이 손상되어 테이프로 부착해 놓았으나 제거해야 할 것이다.

## 2) 내용 및 특징

- 보관함이 유실되었으며, 보존 상태는 중, 함께 수여한 훈장증서가 없으나 알렌의 손녀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알렌이 받은 훈공일등태극대수정부장(勳功一等太極大綬正副章)이라고 사료된다.
- 대한제국기의 훈장제도는 1900년에 실시되었으며, 대훈위(大勳位)로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이 있고 훈공에 따라 수여하는 훈장으로 태극장(太極章), 팔괘장(八卦章), 자옹장(紫鷹章), 서봉장(瑞鳳章)이 있다. 태극훈공 일등장은, 황실이나 아주 특별한 공을 인정받은 외국인에 수여하는 대훈위를 제외하면 훈공에 따른 훈장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 훈공일등 태극대수장(이강칠,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35쪽)



그림 10 훈공일등 태극장(겸 일등부장)(이강칠,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37쪽)

- 태극장은 주로 문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아래 표에서처럼 1900-1905년의 초기에는 매우 드물게 수여하였으며, 통감부 시기 이후 다소 남발한 경향이 있다. 태극장은 1900년에 7건, 1901년에 11건, 1902년에 24건, 1903년에 2건, 1904년에 85건이 수여되었으며, 알렌도 외교관으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이 해에 수증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해에는 ( )안의 숫자에서 보듯이 외국인에게 수여한 것이 많았다. (표 2)에는 태극장의 연도별 수여 상황을 알 수 있는데, 1904년에 수여된 태극장 가운데 훈공 일등장은 17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외국인에게 수여한 것은 13건이었다.

연도별	금척장	서성장	이화장	태극장	자응장	팔괘장	서봉장	계
1900	0		0	7		0		7
1901	0		0	11		26(8)		37(8)
1902	1		2(1)	24(18)		2(1)		26(19)
1903	0		0	2(2)		0		2(2)
<b>1904</b>	3(2)		5(2)	<b>85(67)</b>		31(19)		116(86)
1905	2		6(5)	157(129)		149(97)		166(86)
1906	1		6(6)	107(57)		89(50)		196(107)
1907	5(5)	6(3)	10(3)	222(166)		229(155)		451(321)
1908	3(1)	4(1)	16(14)	131(114)		199(164)	3(3)	333(281)
1909	4(1)	2(2)	5(5)	91(65)		117(80)	24(2)	232(147)
1910	5(1)	0	11(1)	143(39)		906(56)	48(4)	1027(99)
	24(13)	12(6)	61(37)	980(657)		1745(627)	75(9)	2803(1296)

(표 1) 연도별 훈장 서훈 표 - ( )는 외국인 수여 현황

	훈1등	훈2등	훈3등	훈4등	훈5등	훈6등	훈7등	훈8등	계
1900	2	2	3						7
1901	2	5	4						11
1902	10(6)	8(7)	2(2)	1(1)					24(18)
1903	1(1)		1(1)						2(2)
<b>1904</b>	<b>17(13)</b>	10(4)	20(19)	19(16)	11(11)				85(67)
1905	14(10)	17(13)	36(30)	45(41)	30(23)				157(129)
1906	16(10)	15(7)	22(15)	29(14)	18(4)				107(57)
1907	38(21)	23(17)	40(31)	31(23)	29(23)	33(33)		7(7)	222(166)
1908	23(11)	13(12)	24(24)	21(17)	19(16)	6(6)		12(10)	131(114)
1909	14(12)	19(14)	12(10)	15(5)	6(4)	6(4)		8(8)	91(65)
1910	11(4)	6(6)	14(10)	9(6)	11(4)	16(5)	51	9(2)	143(39)
	138 (88)	118 (80)	185 (149)	170 (124)	122 (83)	61 (48)	51 (0)	36 (27)	980 (657)

(표 2) 태극훈장 서훈 표

\* 이강철,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 (백산자료원, 1999)를 바탕으로 정리함

- 훈장의 수증자로 알려진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은 미국의 의사이자 선교사, 외교관으로 1884년 한국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어 미국 공사관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갑신정변으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왕실의사와 고종의 정치고문이 되었다. 1885년에는 국가에서 개설한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 광혜원(廣惠院)의 의사와 교수로 일했으며, 1887년 참사관에 임명되어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의 고문으로 도미하여,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이 불법임을 국무성에 규명하고, 1890년 주한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으로 외교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897년 주한 미국공사 겸 총영사가 되었다. 1900년 영국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를 결성하고, 이듬해 주한미국 전권공사가 되었으며, 1904년 고종으로부터 훈일등(勳一等)과 태극대수장을 받았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때 일본을 규탄하고 한국 입장을 옹호하다 중립 노선을 취하는 루즈벨트에게 파면되어 미국으로 귀환하여 의사로 지내다가 여생을 마감하였다. 저서로는 「KOREAN Tales」, 「THINGS Korean」 등이 있다.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에 확인한 바, 알렌이 훈장과 대수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이 있으며, 현재 훈장증서는 함께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훈장을 기증한 알렌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훈장은 알렌의 수증한 훈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료적 가치가 높다. 훈장이 등록문화재로 신청될 때에는 훈공일등 태극장, 대수와 훈공이등태극장이 별건으로 신청되었으나, 문헌에 의하면 훈공이등 태극장은 훈공일등 태극장의 부장으로 함께 수여된 것이므로, 이 훈공일등 태극장, 대수와 훈공이등 태극장은 하나의 건으로 함께

등록되어야 한다.

- 알렌이 훈장을 수증한 것은 아래 문헌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904년 3월 20일 高宗皇帝가 알렌公使에게 내린 勳一等 太極大綬章.



그림 12 훈공일등 태극대수 정부장을 착용한 알렌

그림 11 유족 보관 알렌 수증 훈장 증서 사진(동은의학박물관 제공)

### 3)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대한제국기의 훈장은 우리 근대사에서 대한제국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공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정한 제도이다. 또한 훈장에는 금척, 이화, 태극 등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어 국가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대한제국기의 훈장제도는 1900년에 실시되었으며, 1910년까지 11년 동안만 실시되어 그 수량에 한정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근대의 정치 외교와 관련된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훈장의 수증자인 알렌은 1884년 내한하여 의사로, 1887년부터는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근대기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알렌에게 수여한 훈장은 우리 근대사에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 훈장이 알렌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었으며 직접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에 기증한 점, 유족이 훈장증서를 소장하고 있는 점, 알렌이 훈장을 착용한 사진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훈장이 알렌이 수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문헌자료

- 알렌이 훈장을 수증한 것은 아래 문헌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기 외교관계 문건인 「외부표훈원거래문」에 따르면 고종은 1904년 3월 20일 미국공사 알렌에게 훈공일등 태극장을 하사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훈공일등태극대수장 정부 2건과 훈기 1도였다. 이에 따라 4월 6일자로 표훈원에서 외부로 문건을 보냈으며 아래의 (자료 1)은 훈장수여를 담당했던 기관인 표훈원 총재임시서리학부대신 민영환이 외부대신임시서리농상공부대신 김가진에게 “美公使 安連(알렌)

에게 賚交하는 勳章 正副本 2건 및 勳記 1도를 送致”했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2)는 이에 대해 4월 30일에 외부대신 이하영이 표훈원총재임시서리학부대신 민영환에게 그 사안을 처리한 결과에 대한 문건을 보내 왔는데, 그 내용은 “美公使 安連(알렌)에게 賚交하는 勳章 正副本 2건 및 勳記 1도” 미국공사관에 보냈으며, 미 공사가 성은에 감읍한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자료 1)

서명 外部表勳院來去文

청구기호 奎 17810

책수 제3책

건명 3월 20일 詔曰 “美國公使 安連(알렌)에게 特敍勳一等, 太極章을 하사하라”고 한 旨意를 받들어 該使의 一等太極大綬章 正副 2건과 勳記 1도를 賚交하니 該館에 轉送하여 該員이 祇受케 해달라는 照會.

발신자 表勳院總裁臨時署理學部大臣 閔泳煥

발신일 1904년 4월 6일

수신자 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金嘉鎭

(자료 2)

서명 外部表勳院來去文

청구기호 奎 17810

책수 제3책

건명 4월 6일의 表勳院照會 兩度(4, 14번 문서)에 따라 日本公使館에 賚送하는 勳記 30건과 美公使 安連(알렌)에게 賚交하는 勳章 正副本 2건 및 勳記 1도를 送致했으며 4월 22일 日本公使館에 勳章, 勳記 각 2건을 轉致했는데 美使의 復에 聖恩에 感泣한다고 했으며 日公使의 復에 각 勳章, 勳記를 모두 交附했다고 했다는 照復 제4호.

발신자 外部大臣 李夏榮

발신일 1904년 4월 30일

수신자 表勳院總裁臨時署理學部大臣 閔泳煥

##### 5) 기타

- 이 훈공일등 태극장과 대수, 훈공이등 태극장(일등 부장)은 동일한 하나의 건으로 알렌에게 수여된 것으로, 알렌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동은의학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등록문화재의 명칭은 이 건을 하나의 건으로 하여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勳功一等 太極大綬章)”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현재 태극장은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대한제국 말기인 통감부 시기의 남서로 인하여 980건에 이르며, 훈공일등 태극장만도 138건에 이른다. 최근 각 박물관에서 근대기 자료를 수집하면서 국내외에서 훈장 자료가 모인 바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태극장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훈장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렌이 수증한 태극장을 등록문화재로 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태극장과의 형평성이나 일괄성이 문제시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훈장의 수증자를 알 수 없는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등록문화재로 인정하게 될 때, 이 훈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렌이 수증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증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의 훈장에 대한 등록문화재 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그 수증자의 확인을 중요한 단서로 제시할 수 있다.

####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훈장의 보관함이 원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함의 제작이 필요하다.
- 훈장의 대수가 보존 과정에서 일부 손상되었으므로 현재 부착되어 있는 테잎 등을 제거하고 보존처리할 필요가 있다.
- 은질이 다소 바래서, 훈장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척하거나, 훈장에 후대에 발린 본드 등을 제거하여 보존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훈공일등 태극장의 뒷면에 홍청 태극부분이 유실되었으나, 그것을 보완할 필요는 없으며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알렌의 훈장착용 사진, 훈장 증서 사진 또는 복제본과 함께 전시하거나 사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훈장을 전시할 때에는 훈공일등 태극장은 대수의 아래쪽 고리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본래의 착용방법이며, 훈공일등 태극장은 부장으로서 가슴에 패용하는 것이므로, 마네킹 등에 부착하거나 알렌이 훈장을 착용한 사진으로서 훈장 착용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7)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인정되기에 적합하며, 훈장증서가 보완된다면 더욱 그 사료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고려됩니다.

### <○○○ 위원>

#### 1) 현황

- 네모난 박스 안에 붉은 색의 대수 1점, 정장 1점, 부장 1점 등 3점이 함께 보관되어 있음.

#### 2) 현상

- 현재 붉은 색의 대수 1점과 금속제 정장 1점, 부장 1점이 각각 별도로 분리되어 하나의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다. 보관하는 상자는 방형의 나무로 만든 상자이며, 윗면에는 손상된 종이 라벨이 붙어 있다.
- 라벨에는 “SMITHONIAN INSTITUTION /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 WASHINGTON D. C.”라는 글자가 3줄로 타이핑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잉크로 “5ss Inscription on Botto…”라는 글자가 써 있는데 글자 뒷부분은 다소 훼손되어 정확하지 않다. 이 상자는 기증자인 미국의 알렌 가족이 보관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증자가 함께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훈장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상태도 아니다.

- 먼저 붉은 색 천을 짜서 만든 대수에는 양쪽 가장자리에 푸른 색 띠가 있다. 대수의 한쪽 끝부분에는 같은 재질과 색의 직물로 만든 커다란 조화 한 송이가 달려 있다. 조화 뒷부분에는 후대에 보수 목적으로 붙였는지 스티커 같은 것이 지저분하게 달려 있는 상태인데(그림 2), 이것은 원래의 상태는 아니다. 대수 끝부분에 정장을 매달아야 하는 곳에는 뒷면에 금속으로 만든 고리가 달려 있다. 이 고리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곳에 정장을 매달 수 있는 구조이다.(그림 3).



그림 2. 대수의 조화 뒷부분.



그림 3. 대수 뒤의 고리 부분.

- 정장은 태극장으로, 금속으로 만든 후 태극과 광선 부분에는 칠보기법으로 장식하여 색을 표현하였다(그림 4). 태극장의 기본적인 형태는 금속판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든 것으로, 뒤쪽에서 보면 땀을 해서 붙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 앞쪽에는 태극 문양이 칠보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태극 주위의 광선은 모두 별도의 금속판을 만들어 붙이고 칠보기법으로 장식한 것이다. 바탕 금속의 재질은 문헌 기록에 의하면 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금제인지, 은제 도금인지는 육안으로 다소 판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 태극장 위쪽에 매달려 있는 장식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화꽃 문양으로, 아래쪽에 초록색 이파리가 달린 측면상의 꽃으로 표현되어 있다. 꽃잎은 앞면과 뒷면에 모두 5개씩이며, 이파리는 각각 3개이다. 그중에서 이파리 부분의 뒷면에는 금속선으로 “勳功壹等(훈공일등)”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그림 6). 꽃잎 안의 꽃술과 이파리의 잎맥, 그리고 문자는 모두 금속선을 이용한 것으로, 이것들이 유선칠보기법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꽃 위에는 금속으로 만든 작은 고리가 있어서, 이 고리로 대수에 매달 수 있도록 된 구조이다.
- 부장은 역시 태극장 형태인데, 정장과 함께 대수 윗부분에 꽃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대수에 매달도록 위에 이화꽃 장식과 고리가 달리고 태극 주위를 1단의 광선으로 에워싼 정장과는 달리, 이화꽃 장식과 고리가 없으며 태극 주위를 2단의 광선으로 에워싼 형태이다(그림 7).
- 부장의 제작 방식은 정장과 비슷하긴 하지만, 별도의 바탕 금속판을 덧대어 상하 2단의 광선 형태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상단의 광선은 칠보기법으로 장식했지만, 하단의 광선은 음각을 한 후 점을 찍어서 장식하였다.



그림 5. 대수에 정장을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정장의 앞면.



그림 6. 대수에서 분리해 놓은 정장의 뒷면.

- 부장의 뒷면에는 “勳功(훈공) / 貳等(이등)”이라는 문자가 2줄의 음각으로 새겨져 있어서, 그동안 별도의 훈공 2등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듯한데, 원래부터 일등 정장과 함께 하사되는 부장에 해당한다. 문자의 양쪽 부분에는 현재 고리가 만들어져서 대수에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자 아래쪽에도 고리가 “C”자 모양으로 붙어 있는데 고리의 형태는 원래 형태에서 완전히 변형된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그림 8). 아마도 보관하던 도중 고리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져서 원형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편과 같은 모양으로 고친 듯하다.
- 전체적으로 앞부분의 상태는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남아 있으며, 대수와 정장, 부장 등 일괄품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그림 9).

### 3) 내용 및 특징

- 이 훈장 일괄품은 대한제국 초기에 수여한 태극장 훈장 일괄품으로서, 대한제국 초기에 한국에서 활약하던 미국의 의사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이 1904년 받은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알렌은 의료 선교사 겸 외교관으로 1884년 내한하여 활약했으며, 1885년에는 한국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광혜원에서 의사 겸 교수로 활동하였다. 이 훈장은 1904년 고종이 하사한 것으로, 하사 받을 때 함께 받은 훈증장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알렌의 유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 훈장 일괄품은 알렌이 귀국하면서 미국으로 가져가 보관하다가, 그의 사후 그의 유가족들이 보관해오던 것을 근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이다.
- 알렌이 이 훈장을 수여받은 1904년까지 태극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100여명 남짓으로, 현재 대수와 정장, 부장, 훈증서가 모두 남아 있는 예는 극히 드물다.

현재 훈증서는 미국의 알렌 유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관되고 있지만, 훈증서의 소장처가 확실히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이 훈장 일괄품은 하사받은 사람과 연대가 확실하게 알려진 중요한 작품으로서, 근대기 한국 의학사 및 대미관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제작 연대가 확실하여, 20세기 초반 대한제국기의 금속공예 및 칠보공예의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 4)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알렌 수증 훈공 일등 태극장”은 수증자의 신분과 수증 일시가 확실하며, 수증받은 태극장이 대수를 포함해서 비교적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특히 수증자인 알렌은 근대 의학의 발전 및 서양식 교육 제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그가 받은 훈증서가 가족들에 의해서 잘 남아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 현재 대수와 부장의 경우에는 뒷면을 중심으로 원래의 상태가 다소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보존시의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수와 정장, 부장이 세트로 잘 남아 있는 태극장 일장의 예가 현재까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수증자가 확실한 경우도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알렌 수증 훈공 일등 태극장은 3점 1건의 유물을 일괄품으로 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알렌 수증 훈공 일등 태극장 일괄 유물 상태.

#### 5) 기타

- 이 유물은 알렌이 1904년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을 알렌의 유가족이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소장품이다.
- 등록문화재 신청 당시 소장자가 붙인 명칭은 “알렌이 받은 태극 훈공일등훈장”, “알렌이 받은 태극훈공이등훈장과 띠” 등 3점을 2건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조사 결과 현존하는 3점은 모두 1건의 훈장에 해당한다. 문헌기록 및 유물의 상태로 볼 때, 이 유물들은 “일등태극장”의 정장과 부장, 대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유물의 명칭은 2건을 일괄하여 “알렌 수증 훈공 일등 태극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 대한제국기의 태극장은 상당히 여러 명에게 수여된 편이므로, 훈장 유물은 제법 알려져 있는 편이다. 그렇지만 훈장 수증자와 일괄품 세트가 모두 남아 있는 예

는 극히 드물며, 수증자인 알렌의 한국 근대사 및 의학사적 의의를 고려해 볼 때, 이 훈장은 매우 귀중한 유품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기증자인 알렌 유가족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훈증서를 함께 기증받아 일괄품인 훈장과 훈증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도 한국 근대사 연구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6) 문헌자료

- 알렌이 태극장을 수여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알렌 유가족이 보관하는 훈증서 이외에도, 『外部表勳院來去文(외부표훈원래거문)』(奎 17810) 제 3책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 『外部表勳院來去文(외부표훈원래거문)』 중 1904년 3월 30일자에는 “美國公使 安連(알렌)에게 特敍勳一等, 太極章을 하사하라고 한 旨意를 받들어 該使의 一等太極大綬章 正副 2건과 勳記 1도를 賚交하니 該館에 轉送하여 該員이 祇受케 해달라는 照會”가 기록되어 있으며, 4월 6일자에는 “表勳院照會 兩度(4, 14번 문서)에 따라 日本公使館에 賚送하는 勳記 30건과 美公使 安連(알렌)에게 賚交하는 勳章 正副本 2건 및 勳記 1도를 送致했으며 4월 22일 日本公使館에 勳章, 勳記 각 2건을 轉致했는데 美使의 復에 聖恩에 感泣한다고 했으며 日公使의 復에 勳章, 勳記를 모두 交附했다고 했다는 照復 제4호”가 남아 있으며 발신일은 4월 30일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당시 알렌이 하사받은 훈장의 명칭은 “一等太極大綬章 正副(일등태극대수장 정부) 2건과 勳記(훈기) 1도”였음을 알 수 있다.

#### 7)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재 대수의 꽃 뒷부분에 원래는 없었던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고, 부장의 뒷부분에 있는 편은 원상과는 달리 변형된 상태이다.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대수 뒷부분의 테이프는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직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장의 뒷부분은 변형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편의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금속으로 된 정장과 부장은 다소 바탕 금속의 색이 변색된 상태인데, 보존처리와 함께 원래 금속의 재질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헌 기록상에서 태극장은 금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의 변색 상태로 볼 때에는 금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헌기록과 실제 유물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과학적 성분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편, 이러한 태극장 유물 중에서 수증자가 확실하고 훈증서가 함께 남아 있는 유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추후 알렌 유가족이 가지고 있는 훈증서를 함께 기증받아 일괄품으로 보관·지정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만약 전시를 할 경우에는 훈장의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 3점을 함께 전시하고 좀 더 좋은 상태의 훈증서 사본(그림 10)과 안내문을 비치하여, 그 유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 10. 알렌 수증 훈공 일등 태극장 수여 관련 훈증서.

## 8) 종합의견

-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알렌 수증품으로서, 문헌기록과 훈증서를 통해서 수여 사실이 확인되는 중요한 근대문화재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교수>

### 1) 현상

- 훈공일등 태극장의 경우, 앞면의 문채, 고리, 꼭지는 완전한 상태이나 뒷면의 범랑제 홍청 태극 부분은 유실되었다. 은질의 색상은 퇴색된 느낌이다.
- 훈공이등 태극장의 경우, 앞면의 보존상태는 좋으나 뒷면의 패침은 일부 손상되었다. 가슴 패용의 패침은 천에 고정된 상태이다. 훈공이등 태극장의 패침은 정상위치가 아닌 듯하다.
- 대수의 경우, 청홍색의 직조로 정상이다.
- 훈공일등/이등 태극장과 대수는 미국 Smithsonian Institute 소장품 목제 상장여서 원래의 훈장 보관함은 아닌 듯하다.

### 2) 내용 및 특징

- 본 훈장은 알렌이 1904년 고종황제로부터 수증 받은 훈공일등 태극장과 훈공이등 태극장 그리고 대수를 포함한 1건이다.
- 알렌(Horace Newton Allen, 한자명 安連(안연), 1858-1932)은 미국출신 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 조선말기의 사회와 밀접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하이오 텔라웨어 출생으로 오하이오 웨슬리언대학 신학과(1881)와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1883), 미국 북장로교의 의료선교사로 상하이에 파견되어 아시아와 인연을 맺었다. 이어 1884년(고종 21)에 내한하여, 국내 최초의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갑신정변 당시 민영익을 치료한 계기로 왕실의사 및 고종의 정치고문이 되었다. 1885년 최초의 현대식 병원인 광혜원의 의사/교수로 재직하면서 의료발전에 헌신했다. 이어 그는 1887년 참사관으로 임명되어 주미전권공사 박정

양의 고문으로 도미했다. 1890년 주한 미국공사관의 서기관, 총영사(1897), 전권 공사(1901) 등으로 활동했다. 이와 같은 공로로 1904년 고종황제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는 을사조약 체결 당시 파면되어 미국으로 환국했고, 뒤에 의사로서 활동했다.

- 저서는 [Korean Tales], [Things Korean] 등이 있다.
  - 대한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도부터 시행한 바, 훈공에 따라 태극장, 팔괘장, 자용장(紫鷹章), 서봉장(瑞鳳章) 등이 있고, 태극훈공 일등장은 황실 관계 혹은 특별공로 외국인에게 수여했다. 1900년대 훈장서훈 목록에 의거하면, 1901년 태극장 11개 등 총37명(외국인 8명, 이하 팔호는 외국인), 1902년 37명(8), 1903년 26명(19), 1904년 2명(2), 1905년 116명(86), 1906년 166명(86), 1907년 196명(107), 1908년 451명(321) 등 1905년 통감부 시기부터 남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서 보면 1904년 수증한 알렌의 경우는 초기의 진정성 있는 서훈이었음을 알게 한다.
- 3) 문헌자료
- [외부 표훈원 거래문(外部表勳院去來文)](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은 대한제국기 외교관계 문건으로, 고종황제가 알렌에게 태극장 하사 관련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 발신자(표훈원 총재 임시서리 학부대신 민영환)는 수신자(외부대신 임시서리 농상공부 대신 김가진)에게 고종의 하명을 전달한다.
  - “건명 3월 20일 詔曰 ‘미국공사 安連(알렌)에게 特敍勳 일등 태극장을 하사하라’ 고 한 旨意를 받들어 該使의 일등 태극 大綬章 正副 2건과 勳記 1도를 0교하니 該館에 전송하여 該員이 祇受케 해달라는 照會”(1904, 4, 6)
  - 위와 같은 하명에 대한 외부대신의 전달완료를 보고(4월 30일)하면서 매듭을 지었다.
  - 참고도서 [대한제국시대 훈장제도](이강칠 지음, 백산자료원 발행, 1900)
- 4) 기타
- 알렌 수증 훈장은 뒤에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연세대 130주년 기념으로 알렌의 증손녀 리디아 알렌이 동은의학박물관에 기증한 것이다(2015, 4, 10)
- 5)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등 일괄유물은 알렌의 역사적 의미, 특정인에게 수여한 희귀성, 보존과정의 투명성, 유물의 보존상태 등으로 보아 등록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손상된 대수 등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은실, 훈공일등 태극장 뒷면 태극문양의 수복 보존처리 필요하다.
  - 원래 훈장 보관함의 복원이 요구된다.
- 7) 종합의견
- 알렌의 역사적 위상과 대한제국기 유존 훈장의 희소성, 유물의 보존상태 등을 종합하여 근대문화재 등록가치가 있음

### 13.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추진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광복70년 기념을 기념하여 우리과에서 추진 중인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내용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추진계획 보고

#### 다. 추진 배경 및 목적

-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을사늑약부터 광복까지의 역사적 자료 및 문화재를 활용하여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역사적인 교훈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공유하며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라. 전시개요

- 전시회명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 '중명전, 고난을 넘어 미래로'
- 전시기간 : 2015.8.7.(금)~ 9.6.(일) / 31일간 ※ 개막식 : 2015.8.7.(금) 19:00
- 전시장소 : 덕수궁 중명전(지상2층 강당)
- 전시대상 :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및 항일독립운동 문화재 및 관련자료 등
- 시행주최 : 문화재청 ·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소요예산 : 176백만원

#### 마. 전시방향

- 을사늑약부터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역사적 자료 및 문화재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를 통한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함.
- 특히, 전시장소인 '중명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 중명전 : 을사늑약(1905년) 체결 장소이면서 헤이그특사(1907년)를 파견한 장소
- 다양한 전시기법을 이용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매체로 관람객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체험 기회 제공

**바. 추진경과**

- 2015. 3월 : 자문위원단 구성, 특별전시 입찰 발주
- 2015. 4월 : 계약체결(작품오늘/176,000천원)
- 2015. 5월 : 착수보고회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15. 6월 : 제2차 자문회의 개최
- 2015. 7월 ~ : 전시 홍보 및 전시 공간 조성

**사. 의결사항 : 원안 접수**

- 출석 7명, 찬성 7명

붙임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추진 계획(안)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추진 계획(안)

## □ 추진배경 및 목적

-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을사늑약부터 광복이 되기까지의 역사적 자료 및 문화재를 활용하여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역사적인 교훈과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공유하며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함.

## □ 전시개요

- 전시회명 : 광복70년 기념 특별전 - ‘중명전, 고난을 넘어 미래로’
- 전시기간 : 2015.8.7. ~ 9.6. ※ 개막식 : 2015.8.7.(금) 19:00
- 전시장소 : 덕수궁 중명전(지상2층 강당)
- 전시대상 :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 및 항일독립운동 문화재 및 관련자료 등
- 시행주최 : 문화재청 ·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소요예산 : 176백만원

## □ 전시방향

-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문화재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를 통한 과거 · 현재 ·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함.
- 특히, 전시장소인 ‘중명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함.  
※ 중명전 : 을사늑약(1905년) 체결 장소이면서 헤이그특사(1907년)를 파견한 장소
- 다양한 전시기법을 이용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매체로 관람객들에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체험 기회 제공

- 전시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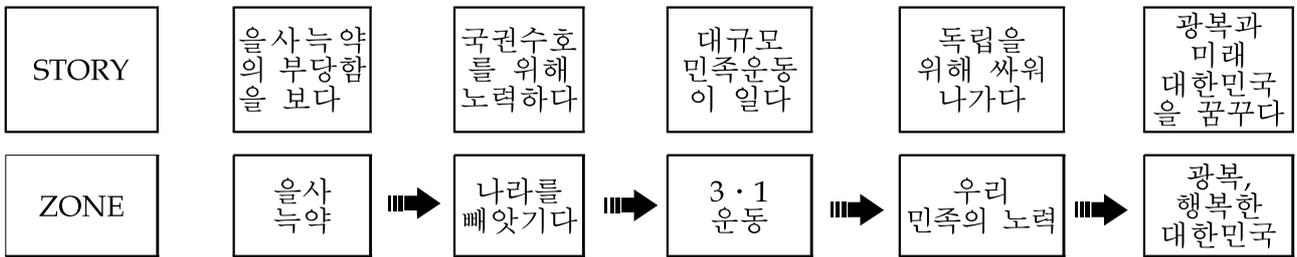
INTRO

1 ZONE

Bridge

2 ZONE

3 ZONE



○ 전시 기본계획(안)

ZONE	CORNER	ITEM	CONTENTS	비고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다	을사늑약 체결 당시의 강압적 분위기 연출	
나라를 빼앗기다	고종 황제의 고뇌, 그리고 헤이그	제국 선포를 통해 자주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고종 황제	대한제국 선포 등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생활하며 일제의 침탈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의지를 보여줌	
		헤이그를 향한 특사들의 여정	고종이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헤이그로 보내 대한제국의 자주국가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헤이그 특사의 여정과 주요 현장 소개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 호소 특사들의 통단과 이준의 죽음		
국권침탈과 저항	외교권부터 주권까지 우리 민족의 저항	1910년 국권 상실까지의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의 거, 의병운동 등 국권회복 노력을 보여줌		
3·1운동	태극기와 함께한	3·1운동 전 민족, 전 계층의 참여	3·1운동 발생 배경과 의의를 소개	
우리 민족의 노력	여러 지역에서의 독립 외침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주 등 국외의 독립운동 소개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구분 없음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		노동자, 여성, 학생, 백정 등 다양한 계층 참여 독립군, 외교활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 소개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	광복과 시련		광복과 곧바로 찾아온 분단, 미래의 대한민국 비전에 대해 생각해 봄	
	그후, 우리는 광복 100년, 행복한 대한민국			

□ 추진 경과

- 2015. 3월 : 자문위원단 구성, 특별전시 입찰 발주
- 2015. 4월 : 계약체결(작품오늘/176,000천원)
- 2015. 5월 : 착수보고회 및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2015. 6월 : 제2차 자문회의 개최
- 2015. 7월~ : 전시 홍보 및 전시 공간 조성